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사회의 신영성운동(新靈性運動)

: 수선재(樹仙齋)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지영

2012년 2월

석사학위논문

한국사회의 신영성운동(新靈性運動)

: 수선재(樹仙齋)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 지 영

2012년 2월

한국사회의 신영성운동(新靈性運動)

: 수선재(樹仙齋)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조 성 윤

박 지 영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박지영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년 2월

New Spirituality Movement in Korea
: Focus on Suseonjae in Jeju-do

Ji-Young Park
(Supervised by professor Sung-Youn C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for the of korean studies

2012.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
I. 서론	1
1. 연구목적과 연구대상	1
2. 선행연구검토	5
1) ‘영성’과 ‘신영성운동’ 개념	5
2) ‘종교현상’ 개념	7
3) 미국의 뉴에이지운동	9
4) 일본의 신영성(정신세계)운동	12
5) 한국의 기수련단체운동	14
3. 연구방법	19
II. 수선재의 신영성운동	22
1. 수선재의 역사적 전개과정	22
2. 수선재의 조직	26
1) 참여계층	29
(1) 리더	29
(2) 일반참가자	30
3. 수선재의 교리	31
4. 수선재의 실천방식	39
1) 운영전략으로서의 실천방식	39
2) 문화운동으로서의 실천방식	42
3) 사회구원으로서의 실천방식	43
5. 수선재의 신영성운동의 특징	43
1) 영성적 특징	44
2) 종교적 특징	45
III. 결론	46
참고문헌	49

Abstract

New Spirituality Movement in Korea : focused on Suseonjae in Jeju-d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swer these questions: About Korea's Life Force training group since 1990, what is similar and different against New Age movement in USA and New Spirituality movement in Japan? What is the identity of Life Force training group? And is there new religious status resulting from individualism in modern society?

For example, this study discovered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training the mind and the body among New Age movement in USA, New Spirituality movement in Japan and Life Force training group in Korea, and in depth and concretely searched for Suseonjae born in 1998 as the new religious statu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uth and the character in Korea's New Spirituality movement from Suseonjae, Life Force training group. In result, it is sure that Life Force training group is the new religious status and the reasons are as following.

First, Korea's Life Force training group refuse to put itself in range of religion. Similarly, Suseonjae define itself 'non-profit educational group' or 'meditation school' as criticizing the negative effect of religion. However, for the modern people searching for the stability of body and mind, Suseonjae suggests to be rescued through the meditation or Seongye Practice: as their word, this is the evolution of man. Eventually, it is showed to acknowledge religious belief with relief.

Second, in modern society, there is the period of healing beyond well-being. Suseonjae, practicing New Spirituality movement, notices the need trend from modern people and suggests an alternative for it. The alternative is the program

of 'meditation academy' to be readily accessible and of 'Seon Museum' to be a museum of life.

Third, when the part of the religion has not got the need of modern people, but built up the their organization, Suseonjae suggests the solution and program involving the real need of modern people as notice.

Forth, as above-mentioning, Suseonjae insists itself not on religion, but on culture community. However, Suseonjae was born in realization of Hwa-Young Mun. That is, Suseonjae, as intended or unintended, makes the community as sharing the same values, conducts meditation or Seon Exercises the ceremony, and even memorizes the literature of Hwa-Young Mun as a bible. As it was considered, it is the same as the new religious status.

Fifth, Suseonjae insist on meditation and hypogastric breathing as main activity. And there are the culture program or ecology movement in Suseonjae. Through it, various elements, being difficult to define as the one character, are involved in Suseonjae

This study was focused on defining the real character of New Spirituality movemen in Korea through Suseonjae. As Suseonjae is various and vague, it is difficult to define it as a standard of old religion. Only it is identified that Suseonjae has the character of extended religion .

Nowdays, there is few discussion of Life Force training group in the related academia. this study means much to this climate because of case research in Suseonjae. In spite of that, there should have been the in-depth research and analysis of more groups to define the character of New Spirituality movement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limitation of only one case research, and the definition of the others remains as the follow-up.

Keyword: New Spirituality movement, Life Force training group, New Age movement

I. 서론

1. 연구목적과 연구대상

인간관계의 양상 및 개개인의 사고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현대사회는 그에 걸맞는 다양한 형태의 불안과 무력감 그리고 그와 더불어 파괴적인 욕망들이 무한대로 팽창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특징적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나 불교를 비롯한 기존의 종교는 위와 같은 현대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폐적이고 자족적인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 이른바 ‘익명의 대중들’은 자신들의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 귀속되기를 꺼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영성(靈性)운동’은 기존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미디어의 상업주의에 의해 판매되고 소비되는 측면을 내포하면서도, 분명 현대인의 자기 형성에 있어 중요한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¹⁾

한국사회에서 이와 같은 ‘영성(靈性)’의 추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이 기(氣)수련단체의 증가이다. 특히 기(氣)수련단체는 1990년대 이후에 와서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²⁾ 기(氣)수련단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현대사회의 새로운 종교현상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1) 박규태, 「일본의 현대종교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정신세계·신영성운동·신종교」, 『신종교연구』, 한국신종교학회, 2000, 33쪽.

2) 한겨레, ‘마음 다스려 건강 되찾는다, 기공수련법 인기 확산’, <http://www.kinds.or.kr/>, (1992.11.18.): 중국 수교 뒤 부쩍 늘어 내외단공·천도선법 등 갖가지, 직장인들 관심 높아-기업형 집단수련원 등도 등장, 최근 갖가지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자가치료 또는 생활건강요법으로 기수련이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과의 수교 이후 부쩍 일고 있는 기수련 열기는 기공·외내단공·도인건강술·천도선법 등 이름과 형태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내세우는 원리도 서로 다르지만 호흡법과 반복적인 몸동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대체로 전래 무술에서 비롯된 중국의 기공법을 따르고 있으나 인도 쪽에서 들어온 요가, 명상법, ‘옴마니 반메훔’과 같은 밀교의 주문 등을 뒤섞은 형태나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선도법도 있다. 가르치는 형식도 제각각이다. 서울과 지방에 수련원을 두고 공개모집보다 개인 소개형식으로 인원을 제한해 1주일~한 달씩 합숙을 하는 곳도 있고, 전국 26곳에 지부를 두고 지하철역 등에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하는 기업형 수련원도 등장했다. 20만원의 입회비만 내면 평생 동안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방식이 있는가 하면 2백일 과정에 입회비 12만원, 월 5만원씩의 회비를 따로 받는 곳도 있다. 기수련은 대부분 지병이 있거나 만성질환으로 오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자가치료의 수단으로 배우지만 최근에는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관심을 갖는 20~30대 젊은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기공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는 한국외내단공연구학회에서 운영하는 ‘건강체조보급회’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임의단체여서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그 숫자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990년대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이런 여파로 불안정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신적 평안을 기존 종교단체가 아닌 새로운 대안에서 찾고 자 하였다. 그 틈새를 기(氣)수련단체에서 운영하는 요가, 단전호흡, 명상 등이 차지하게 되었다. 기(氣)수련단체에서는 몸의 건강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氣)수련을 하고, 그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종교단체에서는 자신들의 교세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런 현상을 경계하고 있다. 즉 종교시장의 관점³⁾에서 보았을 때 스스로 ‘종교’라고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느슨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氣)수련단체의 행위는 기존 종교의 교세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98년 WHO 건강규정에 ‘영적(靈的)안녕(安寧)’ 조항이 신설되었다.⁴⁾ 여기서 영적안녕이란 ‘정신적 웰빙(SPIRITUAL WELL-BEING)’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1990년대에 이미 영성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인 추세였고, 한국사회도 그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몸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존 종교 대신에 요가⁵⁾와 명상⁶⁾, 기수련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런 현상을 ‘신(新)영성운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신영성운동’은 일본의 종교학자 시마조노 스스무가 기존 종교와 다르게 ‘자유로운 개인적 영성의 개발이 중심을 이루는 현상’을 정의한 용어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로운 개인적 영성의 개발이 중심을 이루는

3) 박승길, 「한국의 종교시장과 세계구세교 구제제의 차별성」, 『한국종교사연구』, 한국종교사학회, 2005, 436쪽. : 일찍이 ‘버거’와 ‘루크만’은 다양한 종교의 구제제가 쏟아져 나오는 현대의 다종교 상황을 자본주의적 상품시장과 유사한 종교 간의 치열한 경쟁적 시장상황, 즉 종교시장(religious market)을 형성하면서 개인들은 종교 소비자가 되어가는 경향.

4) 연합뉴스, ‘WHO 건강규정에 ‘靈의 안녕’ 신설’, <http://www.kinds.or.kr/>, (1998.01.23.) : 蔡三錫기자-이제 영혼까지 평온해야 완벽한 건강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건강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靈의 안녕(SPIRITUAL WELL-BEING)’과 ‘역동적인 개념(DYNAMIC CONCEPT)’이 신설됐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WHO는 창립 50년을 맞아 현재 개최중인 집행이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현장前文에 이 같은 개념을 추가하기로 한 현장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전의 현장 전문을 통해 WHO는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상태로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 不在만이 아니다”라고 규정해왔다. 이 현장 전문에 ‘영적’ 건강개념이 새로 추가돼 국제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영적 건강개념에는 종교생활 등을 통한 영혼의 안식은 물론 서양의학을 대체하기 위한 전통의학이나 굿거리, 기공법, 요가 등 민속, 민간요법까지 새로운 조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주교회의 한국사목연구소, 『유사영성 운동의 현황과 확산 대책보고서: 가톨릭 영성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중심으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27~53쪽. : 1996년경 지방 자치체가 실시되면서 자유로운 사회단체 설립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요가 단체들이 여럿 생겼다. 가장 오래된 단체인 한국요가협회는 전국에 80여 개의 지부에 2,800여 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2003년에 설립된 국제요가협회는 전국 60개 지부가 있고 지도자를 800여 명을 배출하였다. 한국요가지도자연합회는 정회원으로서 가입한 요가 지도자가 300여 명이다. 대한요가협회는 2004년 설립하여 70여 개의 지부가 있다.

6) 주교회의 한국사목연구소, 앞의 책, 2006, 30~32쪽. : 오늘날 사용되는 명상이라는 용어는 인도 요가의 8단계 가운데 7단계의, 의식이 어느 한 대상에게 전념한 상태를 가리키는 ‘Dhyana’를 번역한 영어의 ‘Meditation’을 일본인이 다시 번역한 것이다. 불교 선종의 참선(參禪)의 ‘선(禪)’ 또한 요가의 ‘Dhyana’를 번역한 말임을 생각할 때 명상은 인도의 종교 문화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톨릭에서 하는 '영성운동'과 구별하기 위해 '신영성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정신적인 안정을 얻는데 종교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산업화로 인해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종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더불어 기존 종교가 보이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 기존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증가 시켰다. 기존 종교에 부정적인 거부감이 있으면서 몸과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이런 흐름을 미국은 '뉴에이지운동'이라고 하고, 일본은 '정신세계운동' 또는 '신영성운동'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기(氣)수련단체의 운동'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의 기(氣)수련단체는 1990년대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었다.⁷⁾ 하지만 이와 같이 기(氣)수련단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氣)수련단체의 운동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

결국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등장한 기(氣)수련단체가 미국의 뉴에이지운동이나 일본의 신영성운동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氣)수련단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와 부합하여 나타나는 또 다른 새로운 종교현상인가?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예컨대 이 연구는 미국의 뉴에이지운동과 일본의 신영성운동 그리고 한국의 기(氣)수련단체의 심신수련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가운데, 이 같은 '새로운 종교현상'의 일환으로 1998년에 생겨난 수선재를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선재를 통하여 지난 10 여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종교현상의 최근 변화와 주요한 특징들을 포착하여,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사례연구(case study)'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례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택된 사례가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로 다수의 기(氣)수련단체 중에서 수선재를 선택하였다.

7) 주교회의 한국사목연구소, 앞의 책, 2006, 27~53쪽. : 금선학회(金仙學會)는 1994년 현문 최병주가 “생활 속에서 도를 구현하려는 수행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만들었다. 석문호흡(石門呼吸)은 한당 선생이 1991년 서울 양재동에 만들었다. 마음수련원은 1996년 우명 선생이 만들었다.

첫째, 수선재는 종교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즉 창시자, 교리체계, 조직체계, 공동체적 의식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출생과 사후의 세계관까지 언급하고 있다. 수선재는 창시자 문화영을 중심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문화영은 수련을 통해 완전한 존재로 명명되는 ‘선인(仙人)’이 되었다고 한다. 제자들은 그의 뜻을 받들어 각자가 ‘선인(仙人)’에 도달하기 위해 수련을 한다. 수련을 하는 방법은 단전호흡을 중시하는 선계(仙界)수련이다. 비록 수선재가 스스로를 ‘명상학교’라고 지칭하면서 ‘종교’로 불리는 것을 경계하지만 연구자는 수선재에 내재된 종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수선재는 명상과 단전호흡을 내세우면서, 지구의 위기와 보편적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수선재는 몸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명상과 단전호흡을 하고, 지구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 지구인들이 실천해야 하는 행동강령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처럼 수선재 안에는 개인과 집단의 구원이라는 명목 하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수선재는 그 자체의 모호함과 포괄성으로 인해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선재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헌자료를 발행하고 있다. 문화영의 저작들은 도서출판 수선재를 통해 발행하고, 내부에서 그것을 ‘교과서’라고 지칭하면서 1권당 100번 정도 완독하기를 권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영의 저작들이 경전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기존의 종교단체 중에서 특히 한국의 가톨릭은 ‘유사영성운동’이라고 기(氣)수련단체를 지칭하면서 경계하고 있다. 즉 가톨릭에서는 수선재를 비롯한 유사성격의 기수련단체들을 자신들의 교세를 위협하는 영성운동으로 분류하여 교인들에게 주의를 권고하고 있다.⁸⁾

다섯째, 창시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대체로 기(氣)수련단체는 남성인 창시자인 경우가 많은데 드물게도 수선재는 창시자가 여성이다. 그리하여 창시자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기 보다는 오히려 조직 뒤에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1990년대에 생긴 단체 중에서 제주도에 있는 ‘수선재’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기(氣)수련단체가 가지고 있는 신영성운동의 특징을 분석하고, 아울러 그 종교적 성향을 밝히고자 한다.

8) 주교회의 한국사목연구소, 앞의 책, 2006.

2. 선행연구검토

1) ‘영성(靈性)’과 ‘신영성운동(新靈性運動)’ 개념

영성을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용석⁹⁾은 기독교에서 영성이란 말은 구약성서에서 바람, 숨,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루아흐(ruah)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사도 바울은 영(pnema)과 육(sarx)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영적 인간과 육적 인간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 바울에게서 영적이란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른 것이며, 육적이란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인간의 마음이나 의지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영성을 가리키는 라틴어 ‘spiritualitas’는 영이라는 말인 ‘spiritus’와 영적이라는 말인 ‘spiritalis’ 또는 ‘spiritualis’에서 비롯된 말이다.

전통적으로 영성이란 기도 또는 기도생활을 통해서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합일을 이루는 수덕적이고 신비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영성은 내면적 삶, 영적 삶, 개인적 경건, 완선의 추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샤를 앙드레 베르나르¹⁰⁾는 “영성신학의 대상을 가리키는 데 우리는 통상 ‘영성’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다. 17세기에 프랑스에서 쓰기 시작한 이 단어는 당시에는 ‘하느님의 눈에 완전해지는 것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감각을 벗어나는 영혼의 내적 수련들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지칭하였다고 한다. 서구에서 영성의 시작은 종교성이 그 중요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가톨릭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느님과 자기 자신, 이웃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자기 초월적인 사랑으로 개방되는 한 사람 또는 어느 단체의 믿음이 지닌 살아 있는 표현”이다.¹¹⁾

불교에서 이해한 영성은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진 자질로서의 불성이다. 불교에서의 영성은 깨달음의 경험, 혹은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능력, 곧 불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²⁾

9) 「기독교 영성 연구」, 『대학과 선교』, 제15집, 2008, 11~49쪽.

10) 『영성신학』, 가톨릭출판사, 2010, 44쪽.

11) 주교회의 한국사목연구소, 앞의 책, 2006, 55쪽.

전명수¹³⁾는 시마조노 스스무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부터는 종래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종교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종교 붐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집단의 구속을 따르면서 초월적인 존재에 복종한다는 개념의 종교의 시대는 끝나려고 하고 있고, 대신에 개개인이 자기탐구를 통해서 ‘영성(spirituality)’을 개발하여 가는 시대가 왔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본래 영성이란 단어는 주로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종교적 가치, 즉 종교적 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특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기독교 영성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영성은 사람들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초감각적 현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태도, 믿음, 수행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존 종교에서는 ‘영성’이 신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영성의 개념이 한국사회를 비롯하여 미국의 뉴에이지운동과 일본의 정신세계운동에서는 종교라는 말 대신에 좀 더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혜란¹⁴⁾은 한국에서 ‘영성(靈性)’은 ‘spirituality’의 번역어로 주로 기독교적 개념으로 그동안 사용되어 왔었다고 한다. 서구학계의 ‘영성’이라는 담론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서구 후기산업사회에서의 변화된 종교지형도,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종교’에 대한 변화된 인식에 대한 경험론적 조사를 바탕으로 한 현대 서구문화의 주요한 특징으로 ‘영성’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는 것 ② ‘영성’ 개념의 모호성에 직면하여 과연 사회 구성원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며 이를 어떻게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과 관련지우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조사연구 ③ ‘영성’을 하나의 분석적 개념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이론화 작업 ④ 서구에서 ‘영성’ 개념의 성립과 그 의미 변화를 지식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동시대의 폭발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영성’ 담론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기업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의 이해관계를 지적함으로써 문화비평적 시각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우혜란의 지적처럼 한국의 관련학계에서는 아직 영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서구학계에서는 ‘영성’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연구성과도 많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관련학계에서도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영성의 개념에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는 영성의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12) 인경, 「불교영성과 명상치료」, 『명상치료연구』, 한국명상치료학회, 2007, 141쪽.

13) 「개인주의적 영성운동과 세속화 논쟁」, 『담론 201』, 한국사회역사학회, 2010, 55~79쪽.

14) 우혜란, 「동시대 한국의 종교현상 연구와 ‘종교’ 개념의 재고찰: ‘영성’에 대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한국종교연구』,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2005, 31쪽.

제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성과에 따르면 전명수의 연구를 제외한 연구는 영성을 종교의 틀 안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반해 전명수는 미국과 일본의 신영성운동을 살펴보고 기존 종교에 편입되지 않으려는 신영성운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영성은 종교계에서 주로 사용한 개념인데 기(氣)수련단체에서도 영성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신영성운동’이란 용어는 일본의 종교학자인 시마조노 스스무를 통해 한국에 유입된 용어이다. 이 용어는 노길명¹⁵⁾, 전명수¹⁶⁾가 사용했다. 이 연구에서는 기(氣)수련단체의 활동을 신영성운동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관련학계에서는 기(氣)수련단체의 활동을 ‘신영성운동’으로 분류하는 학자가 있는데, 노길명이 이에 속한다. 전명수와 백세곤¹⁷⁾은 ‘새로운 종교문화’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학자들간에도 기(氣)수련단체의 활동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2) ‘종교현상’ 개념

학자들의 ‘종교’에 대한 정의는 한마디로 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다. 우선 서구 학계 학자들의 종교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베버(Weber)의 경우 종교가 의미의 틀(the matrix of meaning)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⁸⁾

로버트슨(Robertson)은 종교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 “종교문화는 경험적인 실재와 초경험적인 실재 사이의 구분과 관련된 일련의 믿음과 상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⁹⁾

윌리엄(William)은 종교의 본질을 ‘궁극성(ultimac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종교적인 사람에게 궁극성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실재이다. 궁극성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삶의 기본적인 근원이며, 궁극적 존재는 인간 삶과 운명의 원초적인 결정자로 생각한다.²⁰⁾

15) 노길명, 『한국의 종교운동』,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16) 전명수, 「현대사회와 종교문화의 변용에 관한 연구: 신영성운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7) 백세곤, 「‘새로운 종교현상’으로서의 기수련문화에 대한 연구: 단월드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8) 김종서, 『종교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3쪽.에서 재인용.

19) 이원규, 앞의 책, 2001, 45쪽.에서 재인용.

20) 이원규, 앞의 책, 2001, 47쪽.에서 재인용.

틸리히(Tillich)에 따르면 종교는 인간이 궁극적 존재라고 믿는 것에 대한 인간적 관심이나 인간적 헌신을 의미할 수 있다.²¹⁾

존스톤(Johnstone)은 종교는 사람들의 집단이 초자연적이고 거룩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하여 해석하고 반응하는 믿음과 수행의 체계이다.²²⁾

종교의 본질적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거룩하고 궁극적인 존재, 세계, 그리고 힘에 초점을 맞춘 상징, 믿음, 가치, 수행의 제도화된 체계라고 하겠다.²³⁾

뒤르케임(Durkheim)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모든 것의 특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관념은 종교는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관념이다. 초자연적인 것은 신비의 세계요, 불가사의 세계이며,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다.²⁴⁾ 종교현상들은 신앙과 의식으로 구분된다. 신앙은 생각의 상태이며 여러 표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의식이란 결정된 행동양식이다. 종교는 신화, 교리, 의식, 의례 등으로 이루어진 어느 정도 복잡한 체계이다.²⁵⁾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에 따르면 종교는 일련의 상징적 형태와 인간을 그 존재의 궁극적 조건과 연관시키는 행위이다.²⁶⁾

19세기 말 이래 서구에서는 ‘종교(Religion)’ 개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종교성’이라는 개념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종교’가 하나의 다소간 완성된 교리적 신앙체계와 조직화된 신앙공동체를 뜻한다면, ‘종교성(Religiosity)’은 이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포괄적 개념으로서 교리나 조직의 완성도와는 무관하게 다양한 수준과 성격의 종교적 현상 일반을 표현하고 있다.²⁷⁾ 이렇게 서구의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종교에 대한 정의를 논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사용되는 종교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항기에 형성되어 현재에 널리 쓰여지고 있는 종교 개념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적 개념으로 ‘교(敎)’, ‘도(道)’, ‘법(法)’, ‘학(學)’, ‘술(術)’ 등을 들 수 있다. ‘교’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원을 얻기 위한 특정한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도’는 ‘길’ 혹은 ‘삶의 방식’이라는 뜻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군자(君子) 및 성인(聖人)이

21) 이원규, 앞의 책, 2001, 47쪽.에서 재인용.

22) 이원규, 앞의 책, 2001, 48쪽.에서 재인용.

23) 이원규, 앞의 책, 2001, 48쪽.에서 재인용.

24) 뒤르케임,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민영사, 1992, 51쪽.

25) 뒤르케임, 앞의 책, 1992, 66~67쪽.

26) 맥과이어, 『종교사회학』, 민족사, 1994, 29쪽.에서 재인용.

27) 막스 베버, 『종교사회학 선집』, 나남, 2008, 127쪽.

되기 위한 방법’ 혹은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의 방식’ 혹은 ‘불로장생(不老長生)의 방법’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학’의 개념은 단지 ‘배움’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배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²⁸⁾ 여기에서 종교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은 ‘교, 도’이다.

이처럼 종교는 우주 만물의 존재이유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삶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체계(embracing the whole life)를 제공하고 있다.²⁹⁾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는 동서양의 종교적인 특징을 포괄하여 종교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수선재를 ‘종교’의 일반적인 구성요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뒤르케임이 정의한 종교의 구성요건인 창시자, 교리, 조직, 공동체적 의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구원과 사후세계관, 영성추구 등을 중심으로 수선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수선재라는 단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수선재가 기존 종교와 부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3) 미국의 뉴에이지운동(New Age Movement)

우혜란³⁰⁾은 「서구의 ‘뉴에이지’ 연구동향」에서 뉴에이지의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구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뉴에이지’와 ‘뉴에이지 운동’에서도 서로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뉴에이지운동’이라는 개념은 ‘뉴에이지’가 조직된 실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운동’은 단지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뉴에이지 운동’은 현대인들이 자신이 속한 기존 종교전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성을 다양한 문화적 자원 속에서 선택하고 활동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뉴에이지운동’은 서구의 종교적인 문화풍토에서 생겨난 현상이다.

뉴에이지운동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출신인 블라바츠키라는 여인이 1875년에 미국 뉴욕에서 창설한 신지학협회(神智學協會, The Theosophical Society)가 그 기원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초는 이

28) 장석만, 「개항기 한국사회의 “종교”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32~64쪽.

29) 정태식, 「종교의 정의(定義)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일고찰」, 『2008 전기 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회, 2008.6, 398쪽.

30) 우혜란, 「서구의 ‘뉴에이지’ 연구동향」, 『종교문화비평』,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4, 178쪽.

협회의 3대 회장을 지낸 영국 출신의 베일리(Alice A. Bailey)가 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1세기경에 그리스도 신앙을 크게 위협했던 영지주의(靈知主義, gnosis)까지 그 기원을 소급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뉴에이지운동이 서구 문화, 특히 그리스도교 문화에 대한 회의와 반발을 바탕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한다.³¹⁾

뉴에이지운동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정신적·영적인 건강과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변용을 이루며, 그 결과 새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1960년에 접어들면서 미국사회를 휘몰아친 반문화운동의 물결은 기존의 가치, 제도, 권위, 규범, 신앙 등을 거부하면서 그 영역을 확대하여 나갔다. 당시 서구 사회를 휩쓸었던 히피운동, 프리섹스 운동, 여성해방운동, 흑인해방운동, 반전운동, 학생운동, 자연운동 등은 이와 같은 일련의 저항문화운동들이었다. 이러한 운동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뉴에이지운동의 확산으로 연결되었다.³²⁾

전명수는 「현대사회와 종교문화의 변용에 관한 연구: 신영성운동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뉴에이지운동에서는 전통 종교와는 달리 서구인들의 세계관에 기본틀을 이루어오던 ‘이원론적 사고’를 거부하면서, 서로 대립되는 것들을 하나의 통합된 실체로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그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뉴에이지운동과 일본의 정신세계운동, 한국의 기수련 문화를 신영성으로 범주화하여 새로운 종교문화로 분석했다. 다만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론연구는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단체의 사례가 없어서 이론연구에만 그친 것이 아쉽다.³³⁾

재클린 스톨의 『인간 삶의 신성한 목적』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5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새로운 하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데, 그리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뉴에이지’도 사회 이탈자도 아니다. 그들은 과학자, 건축가, 대학교수, 소설가, 예술가, 주부, 의사, 그 밖에 여러 여론 주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³⁴⁾ 이를 통해 뉴에이지운동은 하나로 묶기에는 그 틀이 느슨하고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뉴에이지는 채널링을 통해 영계(靈界)의 존재와 대화를 한다. 수선재에서 발행한

31) 노길명, 앞의 책, 2006, 208쪽.

32) 노길명, 앞의 책, 2006, 212쪽.

33) 전명수, 앞의 책, 2001, 24쪽.

34) 누크 산체스-토머스 비에라, 『에코로부터의 자유』, 산티, 2011, 19쪽.에서 재인용.

문헌을 참고하면 채널링을 통해 우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다. 이처럼 영계를 다룬다는 점은 뉴에이지와 수선재가 비슷한 점이다.

뉴에이지에 대해 가톨릭에서는 교세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2005년에 그에 대한 대책보고서를 작성했고, 그것을 문헌으로 발간했다.³⁵⁾ 그 내용을 살펴보면 “뉴에이지 종교성의 매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뉴에이지의 성공은 교회로서는 도전이다.³⁶⁾ 뉴에이지는 음악, 영화, 세미나, 워크숍, 피정, 치료 요법, 기타 많은 활동이나 행사와 같은 다양한 현상으로 문화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일부 종교나 유사 종교 단체들이 의식적으로 뉴에이지 요소들을 통합시킨다고 하더라도 뉴에이지는 훨씬 더 광범하고 비형식적이며, 또 뉴에이지가 다양한 종파나 유사 종파들의 사상적 원천이 되어 왔다는 주장도 있다. 뉴에이지는 하나의 통일된 운동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으로 생각하지만 지역적으로 행동하며 접근하는 신봉자들의 느슨한 조직망이다.”³⁷⁾ 뉴에이지의 종교성에 대해 언급을 하며 뉴에이지의 활동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톨릭에서 파악한 뉴에이지의 공통점은 ① 우주를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본다. ② 우주는 신의 영혼이나 정신과 동일시되기도 하는 에너지로 생명을 얻는다. ③ 다양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명상을 매우 신뢰한다. ④ 인간은 비가시적인 상위 영역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사후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 ⑤ 모든 종교와 문화보다 앞서며 우위에 있는 ‘영원한 지식’이 있다고 믿는다. ⑥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은 스승을 따른다.³⁸⁾ 이처럼 뉴에이지의 공통점과 수선재의 활동은 유사점이 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선재에서도 ① 우주를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본다. 그래서 우주인과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다. 그리고 우주 뿐만 아니라 지구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여 지구를 위한 생태운동을 한다. 이를 위해 하루의 5분씩 지구를 위한 명상을 하자고 회원들을 독려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지구의 위기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우주는 신의 영혼이나 정신과 동일시되기도 하는 에너지로 생명을 얻는다. 수선재에서도 우주에 높은 존재의 에너지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존재를 우주인이라고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우주인이 살고 있는 별의 명칭까지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이족의 숨겨진 역사

35) 교황청 문화평의회·종교간대화평의회, 『생명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36) 교황청 문화평의회·종교간대화평의회, 앞의 책, 2006, 27쪽.

37) 교황청 문화평의회·종교간대화평의회, 앞의 책, 2006, 33쪽.

38) 교황청 문화평의회·종교간대화평의회, 앞의 책, 2006, 71쪽.

와 미래』라는 문헌에서는 ‘6차원 별 플레이아데스에 살고 있는 카르멘텔스’라는 우주인과 대화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③ 다양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명상을 매우 신뢰한다. 수선재는 스스로 ‘명상학교’라고 하면서 명상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다양한 존재들과 대화를 한다. 그 내용을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④ 인간은 비가시적인 상위 영역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사후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수선재는 ‘선인(仙人)’이라는 완전한 존재로 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계(仙界)수련’을 제시한다. ⑤ 모든 종교와 문화보다 앞서며 우위에 있는 ‘영원한 지식’이 있다고 믿는다. ⑥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은 스승을 따른다. 수선재는 깨달음을 얻은 창시자 문화영을 따르고, 황진이와 서경덕, 남사고 등을 ‘선인(仙人)’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선재는 뉴에이지와 유사한 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뉴에이지의 ‘영성’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불완전성과 한계 의식을 치유해 주는 내적 경험, 곧 실재하는 모든 것과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내적 경험을 말한다.³⁹⁾

결국 가톨릭에선 뉴에이지가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며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래서 뉴에이지에 의해 가톨릭의 신앙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움직임은 뉴에이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일본의 신영성(정신세계)운동

‘신영성운동(新靈性運動)’이란 일본 동경대학의 종교사회학자인 시마조노 스스무가 현대의 새로운 종교적 흐름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신영성운동이란 자유로운 개인적 영성의 개발이 중심을 이루는 종교 변용 현상으로, 1970년대 이후 세계 선진국에 있어서, 또한 제삼세계도 포함해서 소비문화가 발달한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운동군이다. 이 운동은 신종교의 선상에서 파악되지만, 창시자의 절대적 권위나 신비화, 엄격한 교계와 교리를 갖고 있는 제도적 신종교와 대칭되는 개인주의적 종교운동이다.⁴⁰⁾ 여기에서 이 용어의 핵심은 ‘개인적 영성의 개발’이라는 것이다.

39) 교황청 문화평의회·종교간대화평의회, 앞의 책, 2006, 99쪽.

40) 전명수, 『뉴에이지운동과 한국의 대중문화』, 집문당, 2009, 31쪽.

일본은 ‘정신세계’와 ‘신영성운동’이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 ‘정신세계’라는 용어의 출현은 1970년대 이후에 일본 도시의 대형서점에 등장한 <정신세계>라는 코너와 관계가 깊다. 이 코너에는 동서의 신비사상, 매클린, 슈타이너, 카스타네다 등의 책, 신과학, 트랜스퍼스널 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⁴¹⁾, 샤머니즘, 채널링, 기공, 동양의학, 사후세계와 임사체험 등에 관한 책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는데, 이 같은 책들은 꾸준히 인기를 누리면서 일본 대중들에게 읽히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형성하는 종교문화를 일본에서는 통상적으로 ‘정신세계’라고 부르며, 또한 이들이 구속적인 ‘종교’라는 말 대신에 보다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의미를 지닌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말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신영성운동’이라고 이름 붙여지기도 한다.⁴²⁾

시마조노 스스무는 신영성운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① 신영성운동은 의식변용을 궁극적 실재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본다. ② 신영성운동은 자연과 인간을 초월한 신이 아닌, 자연과 인간 안에 내재하는 신성이나 영성에 주목한다. ③ 신영성운동에서는, 현대란 인류의 영적 진화에 있어 큰 전환점이며, 개개인의 영적 각성은 이 영적진화 과정의 일부라고 간주된다. ④ 신영성운동은 자율적 개인의 각성에 의한 영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 ⑤ 신영성운동은 과학과 종교(영성)를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합치될 만한 것으로 간주한다.⁴³⁾

수선재는 일본의 신영성운동의 특징을 내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신영성운동은 의식변용을 궁극적 실재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본다. 수선재는 명상이나 선계수련을 통한 의식의 각성을 중시한다. ② 신영성운동은 자연과 인간을 초월한 신이 아닌, 자연과 인간 안에 내재하는 신성이나 영성에 주목한다. 수선재는 인간이 진화를 통해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 ③ 신영성운동에서는, 현대란 인류의 영적 진화에 있어 큰 전환점이며, 개개인의 영적 각성은 이 영적진화 과정의 일부라고 간주된다. 수선재에 따르면 지구는 난개발로 인해 지금 위기에 처해있고,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지구인이 영적 각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신영성운동은 자율적 개인의 각성에 의한 영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

41) 매릴린 퍼거슨, 『뉴에이지 혁명』, 정신세계사, 1987, 115쪽. : 인본주의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제 4의 심리학으로, 개인과 인격을 초월하는 아이덴티티의 확장에 대해 연구한다. 절정 경험, 엑스터시, 신비체험, 자기초월 등을 이론 응용적으로 연구하고, 명상, 영적 수행 등의 관련 개념을 연구한다.

42) 전명수, 앞의 책, 2009, 30쪽.

43) 시마조노 스스무, 『현대일본 종교문화의 이해』, 청년사, 1997, 277쪽.

수선재에서는 개인이 지닌 영성을 개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처럼 수선재는 뉴에이지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신영성운동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신영성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지칭하는가에 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도 아직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영성운동과 종교운동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신영성운동은 확연하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초월적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영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분명 종교성을 지니고 있다. 신영성운동의 범위는 광범위하면서 또한 비형식적이다. 이 운동은 건강 운동이나 심신 수련, 또는 문화 양식의 한 유형으로 소위 ‘웰빙 붐’을 타고 전파된다. 신영성운동에서는 우주 자연에 그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생명력으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우주적 생명력, 우주적 에너지가 바로 ‘기(氣)’이고 ‘신(神)’이며 또한 ‘하느님’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우주 자연의 일부인 ‘소우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우주적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가 신이고 하느님이라는 범재신론을 취한다. 신영성운동은 조화와 이해를 강조한다. 신영성운동가들은 자연이나 우주에는 ‘좋은 진동(파장)’이 있으며 그러한 진동에 맞출 때 인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⁴⁾

이처럼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영성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신영성운동이 1970년대 ‘정신세계’ 코너의 책들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학계에서 ‘신영성운동’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는 노길명과 전명수가 있다. 한국의 가톨릭에서는 처음에는 노길명의 ‘신영성운동’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여 사용하다가 이 용어가 지칭하는 긍정적인 의미 때문에 ‘유사영성운동’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종교계의 ‘영성운동’과 구별하기 위해 ‘신영성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5) 한국의 기(氣)수련단체운동

우선 기(氣)수련단체를 살펴보기 전에 ‘기(氣)’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성’과 마찬가지로 ‘기(氣)’를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헤강 최한기는 “천(天)이 생명의 자연이라면 기(氣)는 그 실제적인 생명의 흐름”을 가리킨다고 했다. 여기서 기의

44) 노길명, 앞의 책, 2006, 219~221쪽.

개념이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氣)는 하나이지만 그것이 있는 곳을 가르키는 바에 따라 명칭이 각각 다르다. 그 전체를 가르켜 천(天)이라 하고, 그 주재를 가르켜 제(帝)라 하고, 그 유행함을 가르켜 도(道)라 하고, 사람과 사물에 부여되는 것을 가르켜 명(命)이라 한다. 또한 사람과 사물이 받은 것을 가르켜 성(性)이라 하고, 몸을 통제하는 기를 가르켜 심(心)이라 한다.⁴⁵⁾

이에 따르면 기(氣)는 만물에 깃들여 있는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태계 일반을 두루 관통하는 있는 우주적 생명력’⁴⁶⁾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국의 기(氣)수련단체는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급격히 대중화하기 시작했다. 기수련의 대중화를 가져온 계기로 흔히 한 소설의 폭발적 인기를 든다. 1985년 기수련가인 권태훈의 일화를 다룬 소설 『단(丹)』이 출판되면서 세간에 큰 화제를 뿌렸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기수련은 이미 대중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1970년대에 보급되기 시작한 ‘국선도’를 필두로, 여러 기(氣)수련단체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소설 『단』으로 기수련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수련 동호인이 단박에 1백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다거 한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세간에서 잊혀졌던 기수련이 한국사회에서 극적으로 부활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로부터 20여 년 동안 한국의 기(氣)수련단체들은 괄목할 성장을 이뤘다. 대표적으로 국선도(國仙道), 단월드(丹學仙院), 기천문(氣天門), 연정원(研精院, 韓國丹學會), 수선재(樹仙齋), 도화재(道華齋), 금선학회(金仙學會)가 있고, 그밖에도 무수한 단체들이 활동 중이다.⁴⁷⁾

노길명⁴⁸⁾은 기(氣)수련단체의 시작을 1970년대로 보고 있다. 기수련은 ‘기(氣)’에 대한 관념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전통적인 심신 수련방법의 하나였다. 한국사회에서 ‘기’에 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부터였다. 이때부터 수많은 기 수련 단체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45) 성지연, 「유가철학의 기(氣)와 선(善): 맹자, 주자, 다산, 혜강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제5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04, 167쪽. : 『推測錄』 2-8, 「一氣異稱」, “氣卽一也 指其所而名各殊焉 指其全體謂之天 指其主宰謂之帝 指其流行謂之道 指其腑於人物謂之命 指其人物稟受謂之性 指其主於身謂之心 又指其動而各有稱焉 伸爲神 屈爲鬼 暢爲陽 斂爲陰 往爲動 來爲靜”

46) 노길명, 앞의 책, 2006, 216쪽.

47) 김성환, 「한국의 선도 연구」, 『도교문화연구』, 제28집, 한국도교문화학회, 2008, 26쪽.

48) 노길명, 앞의 책, 2006, 216쪽.

그 수요는 1백 개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또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2~3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⁴⁹⁾

한국에서는 기존 종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동의 일환으로 기(氣)수련단체들이 생겨났다. 특히 명상과 단전호흡을 중요한 수련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대인들은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종교성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기(氣)수련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대중들은 기(氣)수련단체들이 내세우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명상이나 단전호흡을 통해 취하고 있다. 초기에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활동이 점점 깊이 빠지면 공동체에 들어갈 정도로 개입하게 된다.

‘기(氣)수련단체’는 ‘기(氣)’를 우주원리적 근간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몸에 실재하는 기의 흐름을 활성화하여 심신의 기능을 정상화 내지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주와의 합일을 추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특정 기성 종교에 속하지 않는 단체를 가리킨다.⁵⁰⁾

많은 사람들은 영적 관심이나 종교적 욕구를 제도 종교를 통해서만 충족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직면하게 되는 일상적인 사건이나 경험들 안에서 종교적 주제들을 찾아내고, 그것에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⁵¹⁾

한국의 기(氣)수련단체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될 만큼 각 시기의 등장한 기(氣)수련단체의 성격이 다르다.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국선도, 한국단학회연정원, 단월드와 같은 초기의 기(氣)수련단체들은 ‘민족적’ 정체성과 전통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반면에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기(氣)수련단체는 민족적, 종교적 경계를 초월하여 중국, 인도, 일본, 서구 등지로부터 기공, 요가, 아바타(avatar), 초월명상, 레이키(靈氣), 잠재력 개발, 점성술, 최면요법 등과 같은 다양한 수련법들을 수입하여 합일, 심신의 균형 등에 있음을 강조하였다.⁵²⁾ 1998년에 생긴 수선재가 이에 속한다. 이처럼 두 시기로 구분되는 이유는 시대상황과 연관이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전에 비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고 생활수준의 향상도 이루어지자, 사람들의 종교적 욕구는 크게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민족주의 경향이 강하거나 급속한 사회변동에 적응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인간 존엄성, 평등, 평화, 민족자존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나 해원, 상생, 조화 등과 같은

49) 노길명, 앞의 책, 2006, 216쪽.

50) 우혜란, 「동시대 기(氣)수련단체 속의 여성 ‘힐러」, 『종교문화비평』,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6, 123쪽.

51) 노길명, 앞의 책, 2006, 203쪽.

52) 백세곤, 앞의 책, 2006, 31쪽.

윤리덕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저하되는 반면, 개인적인 안녕이나 평화와 관련된 관심은 증대하기 시작한 것이다.⁵³⁾

이처럼 1990년대에 등장하거나, 확산되기 시작한 기(氣)수련단체들은 외국의 요가, 마인드 컨트롤, 초월 명상과 같은 수련법들을 수용하여 개인의 건강 내지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개인 중심적, 현세 중심적 구원관을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에 속하는 단체가 1998년에 문화영이 창시한 수선재이다. 학계에서 수선재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백세곤은 「‘새로운 종교현상’으로서의 기수련문화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수선재를 짧게 소개하고 있다.

1998년에 문화영이 창립한 수선재는 선교(仙敎), 불교, 그리스도교, 무속, UFO신앙, 채널링 등과 같은 다양한 종교적 요소들이 혼합된 신념체계에 바탕을 두고 심신수련법을 일반 대중에게 상품화하여 보급하고 있다.⁵⁴⁾

수선재는 명상 편의점과 명상 카페 ‘명상 아루이 선’과 같은 현대인의 문화적 기호에 부응하는 영성 상품을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접근하고 있다. 명상 휴게실 선(仙)의 홍보 내용에는 명상 휴게실이 심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임이 강조되고 있다. 즉 도시의 전형적인 공간 기호로 인식되는 카페나 편의점의 형식을 통해 심신수련의 ‘인스턴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⁵⁵⁾

이와 같이 백세곤은 수선재에 대해 짧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수선재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박상언⁵⁶⁾은 기(氣)수련단체라는 용어 대신에 ‘심신수련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1990년대 중반이후에 심신수련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종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그러한 개인의 욕구와 소비문화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종교문화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심신수련단체를 한국의 종교지형 전체의 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기(氣)수련단체 중에서 단월드와 수선재를 예를 들어 현대인의 문화적 기호에 부응하여 영성의 상품화, 종교의 개인화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기(氣)수련단체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① 안으로는 소위 ‘신종교’와 같

53) 백세곤, 앞의 책, 2006, 34쪽.

54) 백세곤, 앞의 책, 2006, 56쪽.

55) 백세곤, 앞의 책, 2006, 66쪽.

56) 박상언, 「현대 한국종교문화의 변동 양상과 성격: 심신수련단체에 나타난 치유와 영성의 결합 양태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5집, 한국종교학회, 2006, 271~290쪽.

은 명확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고, 밖으로는 느슨한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② ‘기’ 혹은 심신의 에너지를 우주의 활동원리로 인식하여 개인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정상화 내지 극대화하여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우주와의 합일을 추구한다. ③ 기존의 ‘종교’라는 용어 자체에는 부정적이며 보다 개방적인 ‘영성’이라는 말을 선호한다.⁵⁷⁾ 수선제도 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가톨릭에서는 기(氣)수련단체의 확대를 경계하면서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다.⁵⁸⁾ 가톨릭에서는 처음에는 노길명의 ‘신영성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이 용어가 이 운동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여 ‘유사영성운동’이라고 변경하여 부른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의는 “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에 주류 문화 또는 종교에 대한 광범위하고 두드러진 반작용으로 특정 방법을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특히 그리스도교 교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개인적 각성과 의식 변용 그리고 영적 진화와 인간 완성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⁵⁹⁾

유사영성운동으로 분류하는 단체는 기(氣)수련단체인 국선도⁶⁰⁾, 단월드⁶¹⁾, 한국 단학회 연정원⁶²⁾, 금선학회, 태극회, 기천문⁶³⁾, 석문호흡⁶⁴⁾이고, 명상운동단체로는 수선재, 오쇼 센터, 초월 명상 센터, 아바타, 아난다마르가⁶⁵⁾, 한국 KS 명상회, 브라 마 쿠마리스 명상학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웃는 돌, 마음수련원⁶⁶⁾이 있다⁶⁷⁾고

57) 백세곤, 앞의 책, 2006, 31쪽.

58) 한상봉, ‘교회와 경쟁하는 기 수련 단체’ 기사내용 참고, <http://www.catholicnews.co.kr>, (2011.05.03) : 신영성운동의 부류 가운데 일반인에게 가장 생활적으로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은 ‘기(氣)수련운동’이다. 단(丹)월드(예전의 단학선원), 국선도를 비롯한 기공 수련에 속하는 수련장을 도회지에서 발견하기란 너무나 쉽다. 이는 생태학적 위기와 맞물려서 도시인들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는 데 일차적 원인이 있으며, 최근의 ‘몸’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웰빙 바람을 타고 예전에 헬스클럽에서 다지던 몸을 기공 수련장에서 돌보려고 하는 경향이다.

59) 주교회의 한국사목연구소, 앞의 책, 2006, 10쪽.

60) <http://kouksunin.com/>, (2011) : 현재는 국내 130여 개의 전수장, 100여 개의 연수장, 해외 10여 개의 수련장이 개설되어 있다. 아울러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동덕여대, 영동대, 한국종합예술대, 한양대 등 전국 10개 대학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대학생들에게 우리 전통 수련법을 전수하고 있음.

61) <http://www.dahnworld.com/Introduce/Company.aspx?menuCd=company>, (2011) : 단월드는 전국 동 단위 까지 있으며, 수강권 하나로 전국 340여 개의 센터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음. 현재 국내 단월드 센터에서는 10만 명의 정회원(Membership)과 200만 명의 회원이 단월드 건강수련상품의 탁월함을 체험하고 있음.

62) <http://www.dahn.org/>, (2011) :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충남, 충북지부로 활동하고 있음.

63) <http://www.kichun.co.kr/>, (2011) : 계룡산이 본산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28개의 지부가 있음.

64) <http://do.seokmun.org/>, (2011) : 전국적으로 61개의 지부가 있음.

65) <http://www.anandamargakr.org/>, (2011) : 아난다 마르가는 2005년 현재 약 200여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300만명의 회원이 있다.

66) <http://www.maum.org/>, (2011) : 국내외 312개 지부가 있음.

67) 주교회의 한국사목연구소, 앞의 책, 2006, 18~42쪽.

한다. 가톨릭은 수선재를 기(氣)수련단체가 아닌 명상운동단체로 분류하고 있다. 아마도 이 자료가 2005년에 발간되었는데 수선재가 그 당시 스스로 기(氣)수련단체보다는 ‘명상학교’임을 내세웠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인 기수련 단체로는 단월드가 있는데 백세곤은 「새로운 종교현상으로서의 기수련문화에 대한 연구: 단월드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종교로 분류되기를 거부하면서도 한국사회에서 종교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종교학적 논의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단전호흡·기공·요가·명상을 행하는 ‘기(氣)수련단체’들이 새로운 종교적 분위기를 주도해오고 있다.⁶⁸⁾고 주장하고 있다.

김무경⁶⁹⁾은 「단학선원: 신화의 회귀와 ‘카리스마의 일상화’」에서 ‘기수련문화’ 확산의 구체적인 예로 단학선원을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단월드에만 국한되어 있고 다른 단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 단체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기(氣)수련단체의 역사적 전개부터 특징까지 살펴보았다. 수선재는 초창기에는 기(氣)수련단체라고 스스로 명명했으나 다른 단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상학교’라고 명시하고 있다.

3. 연구방법

한국사회에는 1990년대부터 여러 기(氣)수련단체들이 생겨났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수선재이다. 이 연구는 1998년에 생겨 2011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사계리에 자리한 수선재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가 제주도에 있는 수선재를 처음 방문한 것은 2011년 3월 27일 일요일 오후였다. 대정향교에서 5분 거리인 단산이 보이는 밭 한가운데 하얀 돔 모양의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선(仙)뮤지엄’이라는 전시관에 들어가니 한 여성분이 전시물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전시물 중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 수가 표시된 세계지도도 있었고, 명상을 통해 나무와 대화를 나눈 내용의 애니메이션 동영상도

68) 백세곤, 앞의 책, 2006, 1쪽.

69) 「단학선원: 신화의 회귀와 ‘카리스마의 일상화’」, 『한국종교연구』,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2000, 71~121쪽.

있었다. 스콧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 내용을 소개하는 전시물도 있었다. 그리고 전시관 곳곳에 명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 화창한 일요일 오후였지만 사람은 별로 없었다.

연구자는 전시물을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 주말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했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명상아카데미가 4월에 개강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4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명상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였다. 강사는 40대 남성이었고, 수선재에 속한 사단법인 선(仙)문화진흥원의 원장이라고 했다.

강의내용은 우선 수선재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선(仙)체조’라고 불리는 운동을 하였다. 연구자에게 어떤 운동을 해 본적이 있냐고 물어봐서 요가를 했다고 대답했다. 수선재의 선체조는 단전을 중요시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오행 선체조는 우리 조상들이 행해 왔던 도인법(導引法)을 수선재 명상지도사들이 현대화하고 체계화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강의가 1시간 정도 지나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다른 분이 강의하는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은 선문화진흥원의 이사장이었다. 40대의 남성이었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사람은 남성 1명, 여성 2명이었다. 여성 1명은 30대, 나머지 1명은 60대 정도였고 남성은 50대 정도였다. 강의 내용은 각자의 사주를 푸는 것인데 그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이었다. 수선재는 사주를 4가지 요인으로 설명하는데 핵(核)인자는 부모를 누구로 하여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시간인자는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에 태어날 지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주팔자라고도 한다. 기(氣)인자는 기 속에 포함된 인자의 구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환경인자라고도 한다. 영성인자는 진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인자라고 설명을 했다. 후에 명상아카데미가 주말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참여하였다. 그것은 아트메디테이션(Art-Meditation)이라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 4월 10일부터 2달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강사에게 수선재에 대해서 잘 설명해줄 분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1시에 도립미술관 카페에서 원장을 인터뷰했다. 원장은 수선재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한다고 하니깐 반가워하고 도와주려고 했다. 연구자가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수선재에서 7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5월 22일, 9월 4일, 9월 22일, 10월 30일, 11월 6일에 각각 4명을 했다. 조사방법은 보이스트레코더로 음성 녹음을

하였다. 조사내용은 수선재에 처음 입문한 동기부터 시작하여 수선재의 조직이나 운영방법, 프로그램 등을 면담하였다. 인터뷰는 대체로 호의적인 분위기였다. 그리고 2011년 8월 22일 월요일에 서울 북촌에 있는 선묘지엄을 방문했다. 전시물의 내용은 제주에 있는 선묘지엄과 비슷했지만 장소가 협소했다. 그곳에 있는 분이 수선재에 관련된 동영상 보여주었다. 그리고 앉아서 하는 명상을 했는데, mp3 음성을 들으며 명상을 하는 것이다. 음성은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내용은 파도소리나 새소리, 물소리를 들려주면서 명상에 관련된 멘트를 했다. 그리고 전시관에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를 했다. 2011년 8월까지 참가비가 무료이고, 9월부터 받는다고 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신영성운동을 수선재라는 단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 종교의 종교성을 중심으로 수선재를 분석하여 수선재가 종교적인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수선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각각 10년과 7년 동안 활동한 4인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술과 면담 조사를 했다. 그리고 연구자가 수선재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참여관찰을 하였고, 도서출판 수선재에서 발행한 문헌을 고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문헌조사와 병행한 구술, 면담, 참여관찰은 실질적으로 이 연구를 작성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는 수선재에서 발행한 문헌을 먼저 조사하였다. 이와 병행해서 수선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수선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면담하였다. 1차적으로는 문헌연구, 2차적으로 수선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단체의 외적관점, 3차적으로 수선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해 단체의 내적관점으로 분류하여 수선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을 수선재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해야 하지만 이 연구는 우선 수선재라는 단체에 집중해서 조사, 분석하였다.

II. 수선재의 신영성운동

1. 수선재의 역사적 전개과정

수선재에 관한 다수의 신문자료⁷⁰⁾를 통해 수선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담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수선재는 2011년 현재 ‘명상학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2003년 신문 기사를 참고하면 그 당시에는 ‘기(氣)수련단체’로 규정하여 건강을 도모하는 단체로 소개하고 있다.⁷¹⁾ 그리고 현재는 ‘선(仙)체조’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는 ‘기(氣)체조’라고 정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기(氣)수련단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상학교’, ‘선(仙)’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⁷²⁾

또한 수선재가 2003년에 사단법인 ‘선(仙)문화 연구회’를 창립하고 ‘명상편의점’을 개설한 것은 조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즉 ‘명상편의점’을 만든 것은 명상의 상품화를 위한 시도이었다. 또 2004년에는 명상문화공간 ‘아루이’를 서울 인사동에 개관하였다. 이는 명상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명상의 상품화를 더욱 확대한 방안이었다.

수선재(樹仙齋)는 ‘선도의 나무를 가꾸는 곳’이라는 의미로, 선계(仙界)수련을 하는 수련생들의 모임이며, 선계수련은 인간이 선인(仙人)이 되고 선계(仙界)에 가는 방법을 공부하는 수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⁷³⁾

70) 신문기사 검색사이트(www.kinds.or.kr)에서 ‘수선재’로 검색하여 수선재의 역사적 전개 과정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71) 서울경제, ‘직장인 위한 氣무료강연 열어’ 기사내용 참고, <http://www.kinds.or.kr/>, (2003.01.19) : ‘수선재’ 회원들이 운동으로 건강을 다지고 있다. 수선재는 7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氣)수련 단체. 충북 진천에는 수선대라는 야외 수련장이 있으며 지난해 5월·9월에는 세계에 한국 기(氣) 문화를 알리기 위한 ‘기 문화전’을 열었다. 수선재는 오는 22일 광화문지부(세종문화회관 옆 KFC 3층)에서 직장인을 위한 단전호흡 무료 강연회를 연다.

72) 한국일보, ‘仙체조 中 보급하는 최수영 변호사, "기공의 나라에서 한국 명상 본때"' <http://www.kinds.or.kr/>, (2004.12.04) : 기공(氣功)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 한복판에 우리 고유의 명상법인 선(仙)체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연예 부문에서 시작된 한류열풍을 타고 이제 명상 분야도 도전해 보자는 것이지요." 명상 수련 단체 ‘수선재(樹仙齋)’ 운영위원장 최수영(36) 변호사는 “명상은 차세대 문화산업”이라고 강조한다. “작년에 베이징 지부를 개설했고 현재 42명의 회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연변과 상하이에도 명상지도자를 파견해 놓았습니다. 베이징 왕징공원에서 매일 아침 30~40명이 선체조를 따라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적으로 지쳐 있지요. 그래서 명상은 국가나 종교,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입니다.”

73) 수선재,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수선재, 2008, 5쪽.

수선재의 소개글을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해 공부하는 사단법인 비영리 교육단체, 명상학교’라고 되어 있다. 홈페이지에 있는 글들을 살펴보면 중요한 활동으로 ‘명상’을 내세우고 있다. “남사고, 서경덕, 황진이 선인(仙人) 등이 행했던 전통 명상법인 ‘선계수련’을 배울 수 있는 고급 교육과정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명상수련법을 강조하고 있다.⁷⁴⁾ 그리고 도서출판 수선재를 만들어 명상이나 선(仙)에 관련된 책자를 발행하고 있다. 수선재는 ‘종교’라는 명칭 혹은 ‘형식’을 철저히 부정함으로써 ‘탈(脫)종교적’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접근한다. 수선재는 주로 ‘종교적’ 수사보다는 ‘영성적’ 수사를 사용한다. 그리고 수선재에 속한 단체인 사단법인 선(仙)문화진흥원은 영성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 다음은 선문화진흥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소개글이다.

선문화진흥원의 대표 강좌는 ‘인생에서 중요한 일 8가지’ 강좌입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8가지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8가지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체화할 수 있도록 명상, 코칭, 예술치유, 자연농법 등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을 구비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삶이 바뀌기 어려우며 반드시 가슴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선문화진흥원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이수자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며 참 삶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문화공동체를 이루는 일 또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⁷⁵⁾

위의 내용에 따르면 선문화진흥원은 종교의 영역인 ‘삶과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선재가 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명상, 코칭, 예술치유, 자연농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스로 ‘문화공동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수선재는 종교라고 정의되는 것을 경계하며 스스로 ‘명상학교’ 또는 ‘문화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영성운동의 특성을 수선재라는 단체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수선재의 활동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요소들의 통합 혹은 조합’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종교적인 성향을 드러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수선재는 1998년 서울에 첫 수련장을 만들었다. 문화영은 1988년 안국동 단학선

74) 수선재, http://www.suseonjae.org/kr/02/01_03_02.php, 2011.

75) 사단법인 선문화진흥원, <http://www.seonculture.org/>, 2011.

원에서 기(氣)를 알게 되었고, 중국 용정에서 온 조선족 여기공사에게 특이공능(特異功能)을 수련하였다고 했다.⁷⁶⁾ 이를 통해 수선재가 단학선원과 중국의 기공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선재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면담한 내용과 문헌을 참고하면 1998년에 문화영이 『선계에 가고 싶다』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그 이후 각 도시를 중심으로 ‘수선회’라는 동호회가 만들어져 수련을 했다고 한다. 창시자가 책을 출간하였고, 이를 계기로 단체를 만들었다는 과정은 기(氣)수련단체 ‘한국단학회 연정원’(이하 연정원)과 비슷하다. 연정원의 창시자 권태훈은 1984년 소설 『단(丹)』이 출간되면서 관심이 급증하자 이에 부응하여 ‘연정원’을 1986년에 만들었다.⁷⁷⁾ 이처럼 기수련단체의 태동에 문헌의 발간이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계에 가고 싶다』가 1997년 11월에 출판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수선회(樹仙會)’라는 수련 동호회가 만들어져서 100여 명의 회원이 ‘선계수련’에 동참하였고, ‘수선재(樹仙齋)’라는 수련 장소가 생겼다. 선생님(문화영)의 경우 초기 1년 정도를 하루 10~16시간 이상 집중 수련함으로써, 단전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크게 형성되었다. 이 기간 중 이미 부처님(온 우주를 한 손 안에 장악하는 것)을 보셨으므로, 지금 이렇게 사방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이다.⁷⁸⁾

수선재의 창시자 문화영은 단전호흡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이런 과정을 『선계에 가고 싶다』라는 책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이 출간된 후 전국에 ‘수선회’라는 동호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2001년에는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도 수련장을 마련했다고 한다.

저는 수련이라는 이런 쪽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관심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수련쪽에, 불교를 참 열심히 믿으셨어요. (어머니가) 거기(수선재)를 알고 계셨어요. 제가 좋지 않은 일로 집에 있을 때였어요. 책(『선계에 가고 싶다』)을 주시는데, 책을 보고 제 가치관이 변화되더라구요. 그전까지는 세상적인 부분에 막 쫓아서 살았는데, 그때 32살이었는데, 돈을 쫓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패도 하기도 하고 굴곡이 있잖아요. 『선계에 가고 싶다』 그 책을 봤는데 그전까지 종교생활도 안했어요. 어머니는 열심히 절에 다니셨는데 해인사 성철스님이 살아계실 때 많이 다니셨어요. 삼 천배, 만 배를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불교를 믿지 않았어요. 그게(불교가) 어떤 허점들이 있더라구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설명하지 못하

76) 문화영, 『선계에 가고 싶다』, 수선재, 1999, 프롤로그.

77) 주교회의 한국사목연구소, 앞의 책, 2006, 26쪽.

78) 문화영, 『한국의 선인(仙人)들1』, 수선재, 1999, 131쪽.

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불교를) 깊게 공부를 안했지만 선뜻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그 책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퍼즐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이거는 허구는 아닌 것 같다. 허구로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뢰하게 되었고,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질적인 부분만 쫓아가지고 허겁지겁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에 수련을 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삶이 변한 거죠.⁷⁹⁾

구술자는 수선재에서 10년 동안 활동한 사람인데 10년 전에 어머니가 건네주신 『선계에 가고 싶다』라는 책을 읽고 대구에 있는 수선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구술자는 당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좌절하던 중 책을 통하여 수선재를 알게 되었고, 그 후 10년 동안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수선재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앞의 구술자처럼 문화영의 문헌 『선계에 가고 싶다』를 읽고 그 교리에 수공하여 입문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수선재는 2010년에 사단법인 선문화진흥원을 서울과 제주에 각각 개원하였으며 선(仙)뮤지엄이라고 불리는 인생박물관을 전국에 25개소를 개관하였다.

제가 입문할 때(7년 전)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여러 반이 있었고, 일반대중을 위한 건강반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선재의) 모든 체제가 지구의 상황이 급박하다 보고 빨리 현대인들이 물질문명으로부터 각성을 하고, 이 지구가 인간들이 오만하게 개발하고 정복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일부로서, 그런 존재로 겸손한 삶을 살고 자연과 함께 살도록 하는 생태공동체 운동을 (수선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수선재가) 지금은 옛날과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지 않고 제주선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을, 육지에서는 서울에 사단법인 선문화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그곳을 통해서 선문화진흥원 회원으로서, 수선재가 아니라 선문화진흥원의 회원으로서 긴박한 지구의 상황을 알리고 생태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일련의 교육, 1년 정도의 교육기간을 거쳐서 함께 구체적으로 생태공동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저마다 인간성을 회복되고 사랑을 발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수선재에 입문하고 있어요.⁸⁰⁾

수선재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면담을 통해 연구자는 2010년부터 사단법인 선문화진흥원 1호는 제주, 2호는 서울에 만들었고, 전시관인 선뮤지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단법인 선문화진흥원과 이에 속하는 홍보관이라고 할 수

79) 권00, 남성, 2011.05.22. 구술조사. : 이름, 성별, 조사일자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하 동일한 방법으로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80) 강00, 남성, 2011.09.18. 구술조사.

있는 선뮤지엄을 만든 이유는 지구가 난개발로 인해 위기상황이 도래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구인의 의식 각성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과정은 500명의 수선재 회원들이 명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진행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수선재는 명상을 통해 동식물과 지구와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을 책으로도 발간했다. 그 일례로 『지구에게 듣다』는 명상가들이 소, 개, 돌고래, 식물, 배추, 두더지, 뱀과 대화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이유는 대부분 지구의 위기에 대한 경고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책의 저자인 명상가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약사, 00전자에서 근무했던 사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농부, 음악가, 귀농을 준비 중인 사람, 대안학교 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을 둔 사람 등 매우 다양한 계층을 망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선재의 활동이 1998년 개인의 진화를 위한 수련으로 시작해서 2011년 현재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수선재의 활동은 1998년 개인의 진화(구원)에서 2011년 지구로 그 핵심이 확대되었던 바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뉴에이지의 운동과도 그 맥을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수선재의 조직

수선재의 조직은 수선재, 사단법인 선(仙)문화진흥원과 이에 속하는 선(仙)뮤지엄, 해원동물농장, 공동체 선애(仙愛)빌, 출판사 수선재로 이루어져 있다. 수선재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면담한 결과 수선재의 기존회원은 약 500명 정도라고 한다.

지금은 옛날과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지 않고 제주선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을, 육지에서는 사단법인 선문화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그곳을 통해서 선문화진흥원 회원으로서, 수선재가 아니라 선문화진흥원의 회원으로서 긴박한 지구의 상황을 알리고 생태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일련의 교육, 1년 정도의 교육기간을 거쳐서 함께 구체적으로 생태공동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저마다 인간성을 회복되고 사랑을 발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수선재에 입문하고 있어요.

(면담자)박 : 그런 회원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구술자)강 : 얼마 전에 처음 3명이 되었어요. 기존의 수선재에 입문했던 사람들은 400~500명 정도
되요.⁸¹⁾

회원이 수선재에 입문하기 전에 거치는 과정은 1년 동안 수선재의 명상프로그램
에 참여한 후 강사나 단체사람들이 협의해서 추천서를 쓰면 수선재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회원의 입문을 허락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여러 단체가 있더라도 수선
재의 중심은 수선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선뮤지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생수업을 주제로 내건 국내
최초의 인생 박물관⁸²⁾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선뮤지엄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북촌, 방배, 북한산, 응암에 있고, 경기도에는 평택, 부천, 일산,
용인, 과천에 있으며, 지방에는 제주, 대구, 청주, 강릉, 광주, 울산, 대전, 원주, 하동,
고흥에 있는 등 전국적으로 25개가 설치되어 있다.⁸³⁾ 회원은 서울은 50명, 제주는 3
명이고, 전국적으로 199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외는 미국, 남아공, 스페인, 브라질,
중국 청도에 2곳, 일본 동경에 1곳, 도합 8곳이 개설되어 있다.

사단법인 선문화진흥원은 ‘보람 있는 삶과 아름다운 죽음을 가르치는 비영리교육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서울 가회동과 제주 사계리에 있다. 서울에 있는 선문
화진흥원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로는 선뮤지엄 회원은 전국적으로 199명이며 서울은
50여명, 제주는 3명이라고 한다.⁸⁴⁾ 이들은 기존의 수선재 회원 500명에는 포함되지
않는 회원들이다.

(면담자)박 : 사계리에 자리 잡으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구술자)강 : 그건 (생태)공동체적인 삶을 살겠다고 한 수선재의 회원들이 전부 지분을 투자를 하
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면담자)박 : 총 몇 분인가요?

(구술자)강 : 총 10분정도입니다. (이곳에) 저희의 삶의 터전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것을 이제는 실천해야 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천함으로 동시에 나누고
알리자 그런 의도예요.

(면담자)박 : 돈이 적게 들지는 않았겠네요?

81) 강00, 남성, 2011.09.18. 구술조사.

82) <http://www.seonmuseum.org/kr/01/01.php>, 2011.

83) <http://www.seonmuseum.org/kr/01/01.php>, 2011.

84) 이00, 여성, 2011.10.17. 전화조사.

(구술자)장 : 네, 밭 1,000평을 사고 이 공간을 세우고, 끊임없이 유지, 보수해야 되고 그 돈을 다 우리들이 각자 지분 투자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면담자)박 : 생활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감당하나요?

(구술자)장 : 명상아카데미 강좌나 후원회비, 그리고 이 카페는 별도의 작은 간이 음식점으로 매출이 생기고 있지요. 돈 벌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니까.

(면담자)박 : 이런 의사결정은 협의체가 있는 건가요?

(구술자)장 : 생태공동체는 의사결정구조는 작은 문제부터 완전 민주주의체제와 같이, 일인독재체제로 갈 수 있는 것이 못돼요.⁸⁵⁾

제주도 사계리의 선문화진흥원은 2010년부터 10인(육지부 거주 5명, 제주도내 거주 5명)이 내려와서 생태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 중에서 4인(육지부 거주)을 면담했다. 면담한 내용을 보면 자본은 출자금이나 기부금 형식으로 마련하였으며 제주도 사계리에 1,000평 내외의 토지를 마련하고 선(仙)뮤지엄과 선(仙)카페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생태공동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전남 고흥에 위치하고 있는 해원동물농장에서는 동식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선애빌은 명상학교 수선재의 회원들을 주축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는 생태공동체 마을이다. 선애(仙愛)빌은 ‘선(仙)을 사랑하는 마을’ 이라는 뜻이다. 선애빌의 지향점과 비전을 살펴보면 생태주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영성의 공동체, 선문화실천 공동체, 대안교육과 대안의학 공동체⁸⁶⁾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수선재가 지향하는 공동체적 다양성이 선애빌 마을에서도 관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판사 수선재는 수선재의 태동의 계기라고 할 수 있는 『선계에 가고 싶다』의 출간을 비롯하여 생활 명상 서적인 『무심』, 『여유』 그리고 한국의 격암 남사고, 황진이, 이율곡, 신사임당, 세종, 이순신, 정약용, 최치원 등이 선인(仙人)이라고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한국의 선인(仙人)들』,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등 문화영의 저작을 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주인과 대화했다는 내용인 『동이족의 숨겨진 역사와 인류의 미래』를 발행했다. 이 책에서도 지구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한국의 동이족을 민족주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수선재의 조직을 ‘종교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창시자 문화영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과 ‘사승(師承)’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85) 강00, 남성, 2011.09.18. 구술조사.

86) 사단법인 선문화진흥원, <http://www.seonculture.org/>, 2011.

1) 참여계층

(1) 리더

연구자가 만난 리더 4명은 모두 30대에서 40대의 젊은 층이었고, 대체로 최소한 5년 이상 수선재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수선재의 지도자 과정 프로그램 연수를 받았다고 했다.

(구술자)민 : (그림명상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아트메디테이션 선배님이세요. 미술치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예요. 수선재에 들어와서 본인이 내적인 고요를 얻기 위해 시작한 것이 만다라를 그리는 거, 만다라를 백일동안 그리셨어요. 그리시는 동안 (영적)체험을 하신 거죠. ‘만다’가 내적중심, 본질, 진리, ‘라’가 무엇을 향하다는 뜻이예요. 그래서 내적중심을 향하다, 진리를 향하다라는 뜻이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수련을 하신 거죠. 수련을 하시면서 본인의 배경적인 것과 합치가 되면서 아트메디테이션을 하고, (명상그림) 작품도 있고, (지도자과정)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션이 3개월 과정으로, 작년에 제가 지도자과정(프로그램)을 받은 거고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있어요).

(면담자)박 : 그러면 선생님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죠?

(구술자)민 : 모두 다 해야 되는데, 상단개발프로그램, 중단개발프로그램, 하단개발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는 아트메디테이션 중단개발프로그램을 먼저 전공을 해서(했어요.) (수선재의 사람들) 수십명이 리더로서 교육을 받고, 다른 분들에게 전수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결국에는 다 지도자가 돼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은 것들은 공유해야죠. 이거 꼭 복음 같네. 저 (수선재에) 와 가지고(입문) 저 종교적인 인간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거 지금도 어색해요. 그만큼 적응을 잘 못했어요. 모든 지도자가 정보공유, 사랑의 공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예요. 해외에도 있지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많이 실패를 한 거죠. (수선재가) 13년 동안 확장하고 했으면, 근데 돈을 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벌 수 없었고, 많이 펼치기는 해야 하는데, 돈 벌 능력이 없으니까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한 변명일 수 있으니까.

(면담자)박 : 원장님이나 관장님이나 여기서 부르는 명칭이 있잖아요? 어떻게 정하시나요?

(구술자)민 : 내부 조직이 있어요. 협의체를 통해서 내부인사도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저같은 경우도 그렇구요.

(면담자)박 : 수직적인가요? 수평적인가요?

(구술자)민 : 수직적이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니까 수평적이기도 하지요.

(면담자)박 :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으세요?

(구술자)민 : 개인적인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 흐름에서 돈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굴러가는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조율 차원에서 여기 에너지가 쏠려 있으면 배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믿고 신뢰하고 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어디에 장을 맡고 자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수도 있고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자리에 가서 그 역할을 하고, 저희가 인사이드가 잦은 편이었어요. 지금은 그 이유가 조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경험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고려되는 것도 있어요. 그 고려가 인간의 판단에 의한 것도 있지만 저희는 그 흐름에 있어서 하늘도 관여하신다고 생각을 해요.⁸⁷⁾

위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수선재의 인사이드는 협의체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은 민주적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자신들의 활동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수선재의 리더 4명은 책을 통해 입문한 사람이 2명, 지인을 통해서가 1명, 그리고 직장 가까운 곳의 지부를 방문하여 입문한 사람들이었다. 대체로 30, 40대의 젊은 층이었으며 미혼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2명, 여성 2명이었다. 수선재 활동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최소 7년이었다. 면담한 이들은 자신의 삶이 수선재에 있다고 할 만큼 수선재에 대한 애착이 깊었다.

(2) 일반참가자

수선재에 참여하는 계층은 연구자가 관찰한 바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고, 연령대는 30대 이상이었다. 그리고 수선재에서 활동하는 4인에게 확인한 특징은 현실이 고단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기존 종교 자체를 불신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면담자)박 :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어떤 분들인가요?

(구술자)권 : 정말 각계 각층에서 오세요. 명상이나 수련이나 인연이 돼서 오시는데 의사, 변호사, 가정주부 등 각계각층에서 오세요.

(면담자)박 : 각계각층에서 오시는데 공통점이 있을까요?

(구술자)권 : 공통점이요? 건강해질려고 뭔가 허전한 거지, 뭔가 찾으려는 거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찾게 되어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본성을 찾게 되는 거죠. 내안의 뭔가를 찾는 거죠. 모든 사람은 찾으려고 하고 진화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살면서 만든 예고궤질에 의해서 눈이 감겨져 있는 거죠. 그런 눈을 뜨게 하려고 수련이란 결국 걷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⁸⁸⁾

87) 민00, 여성, 2011.09.04. 구술조사.

88) 권00, 남성, 2011.05.22. 구술조사.

이와 같이 수선재에 참여하는 계층은 기존 종교를 불신하고, 남정보다는 여성이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면담자)박 : 선생님이 6, 7년 계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원장님은 다양한 분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구술자)민 : (수선재에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데 근본적으로, 이런데(수선재) 온다는 것은 근원적인 물음이 있는데,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오시는 것 같아요. 뭔가에 끌려서 오는 건데 본성에 끌림, 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끌려오는데 자기가 붙잡고 답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고,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다 보면 서로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흘러 나가기도 하고, 저같이 머물기도 하고, 저는 특이하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놓치지 않았어요. 중간에 슬럼프가 와서 뛰쳐나갔지만 다시 들어오고 그랬지만 (수선재가) 너무 많은 걸 알려주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어요. 저희 책을 보고, 말씀을 읽고 그런데 뭘 더 바라겠어요. 중간에 생각도 들지 내가 사이비(종교)에 빠진 건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제가 알잖아요. 사이비인지 아닌지 (수선재가 말하는 내용이) 너무 엄청난 정보이고, 가야할 길이 너무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걸 원하긴 했지만 감히 부를 수 없는 전인(全人),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전인. 온전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수선재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불가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따라주느냐 인 것 같아요.⁸⁹⁾

연구자가 수선재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만난 일반 참가자들은 책으로 수선재라는 단체를 알고 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부도 있었고, 동네에 사는 주민도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인생과 죽음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몸도 아프고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 수선재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3. 수선재의 교리

도서출판 수선재에서 발행한 문헌과 면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89) 민00, 여성, 2011.09.04. 구술조사.

첫째는 영계(靈界)나 초감각적 또는 초월적인 존재와의 교감을 추구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수련을 통해 영적 세계나 초월적 존재 또는 조상의 영(靈)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영적 체험을 갖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인간은 진화할 수 있는 가르침을 받는다. 이에 속하는 문헌은 문화영이 1998년 출간한 『선계에 가고 싶다』로 이런 특징이 책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본인이 수련하면서 ‘천강(天降)’이라고 불리는 스승과 대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여기서 천강은 높은 경지에 있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금번 문 선생이 천강과 인연이 된 것은 수련의 정도가 사속(思速)의 200%단계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만큼 상승하여 환인 선인(仙人)의 수준을 능가하여 상승한 까닭이다. 인간이 독학으로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며, 따라서 수백 단계의 검증을 거쳐 천강 선인(仙人)의 문하생으로 거두어 살피고 있는 것이다. 문 선생은 현재 사속의 500%이상 1,000%까지 가능하며 어떠한 우주라도 실시간으로 탐색이 가능하다.⁹⁰⁾

수선재에서는 수련을 통해 인간은 진화를 하여 높은 수준의 존재가 된다고 한다. 영적인 스승과 대화를 하는 과정은 동학⁹¹⁾의 창교자와 비슷한 사례이다. 이런 면은 종교가 탄생할 때의 시초와 닮은 면이 있다. 따라서 수선재는 스스로 종교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정부분 종교적인 성향이 있다고 사료된다.

(수선재가 하는 선계수련이) 채널링이란 게 전혀 무관하게, (채널링은) 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를 매개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신이 명령하는 수직적인 관계죠. 그런데 (수선재에서 하는) 명상을 통한 대화는, 대화를 하는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내가 그 차원까지 간 거죠. 수평적인 관계인거죠.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죠. 『예수인터뷰』도 마찬가지로 내가(문화영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문화영이) 청하는 거죠. 자신이 청할 수 있는 수준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채널링은 그게 아닌 거죠. 대화내용도 명령조예요, 그런 차이예요, 수련을 통해서 본성을 분다는 것은, 인간의 본래의 능력을 찾는 거예요. (인간에게) 조물주의 능력이 심어져 있어요. 본성을 찾아서 일치된 사람이 선인(仙人)이에요.⁹²⁾

90) 문화영, 『천서 0.0001①』, 수선재, 2001, 49쪽.

91) 노길명, 앞의 책, 2006, 138쪽. : 동학의 창교자 최제우는 37세 되던 1860년 기도 생활 중 종교체험을 하게 되고, ‘한울님’이라는 존재에게 계시를 받게 된다. 그 후 그는 1년 동안 한울님과 문답을 하였으며, 한울님 강화(降話)의 가르침에 의하여 스스로 수련을 하고 스스로 닦아 장차 온 누리에 포덕 할 대법(大法)을 세웠다고 한다.

92) 권00, 남성, 2011.05.22. 구술조사.

구술자는 자신들이 초월적인 존재와 대화하는 것은 뉴에이지에서 하는 채널링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은 채널링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수련을 통해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나누는 대화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문헌에서 참고한 채널링의 정의와 수선재에서 명상을 통해 대화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없다.

채널링이란 말 그대로 어떤 대상과 파장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신이나 천사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들, 진화한 외계 존재, 또는 예고 상태를 넘어서 있는 자신의 상위 자아, 심지어는 동식물과 교감을 나누는 영적 능력을 충칭해서 채널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⁹³⁾

다른 저작으로는 『한국의 선인(仙人)들』과 『황진이 선악과를 말하다』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격암 남사고, 화담 서경덕, 황진이, 이율곡, 신사임당, 세종, 이순신, 광개토, 정약용, 최치원, 김가기, 김대성, 연암 박지원, 김시습, 토정 이지함이 선인(仙人)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의 유명한 선조는 모두 망라한 듯 하다. 이들이 선인(仙人)임을 아는 방법은 명상을 통해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다. 수선재에서 말하는 선인(仙人)은 깨달음을 얻어 우주의 일부가 된 이다.⁹⁴⁾

선인(仙人)이란 하단(의지), 중단(사랑), 상단(지혜)이 완성된 존재이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⁹⁵⁾

선인(仙人)은 진화의 최종 관문인 깨달음을 이룬 완성체로서 우주에서 가장 영성이 높은 존재이다. 선인(仙人)은 인간들이 지금까지 말하던 천사, 붓다, 신, 우주인을 모두 합한 개념이나, 실상 그 이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존재는 윤회를 거듭하며 진화해 나가고 있는바 선인(仙人)은 진화의 최종 관문인 깨달음을 완성한 완성체로서 우주 전체를 통틀어 최고 수준의 영성을 가진 존재이다.⁹⁶⁾

수선재에서는 선인(仙人)을 완전하고도 초월적인 수준의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이 수련을 통해서 선인(仙人)이 된다는 설정은 불교의 부처가 깨달음을 얻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수선재가 불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3) 마틴 발레, 『2012, 그 이후의 삶』, 샐티, 2010, 14쪽.

94) 문화영, 『소설 선(仙)1』, 수선재, 2003, 15쪽.

95) 문화영, 앞의 책, 2003, 16쪽.

96) 김대선 외, 『동이족의 숨겨진 역사와 인류의 미래』, 수선재, 2011, 28쪽.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수선재의 선생님을 해보고 싶습니다. 수선재의 선생님은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선생님은 격도 갖추셨지만 수선재의 선생으로서 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선계에서 볼 때도 너무도 보람 있고 좋아 보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⁹⁷⁾

이와 같이 『황진이 선악과를 말하다』, 『예수인터뷰』에서 문화영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면담자)박 : 문화영선생님은 수선재의 뭘까요? 시작 ?

(구술자)권 : 네, 그렇게 하셨고, 일선에 안계시고 자유인으로 살고 계세요. (수선재는) 제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가르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거죠,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해,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죠.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도록. (수선재의 사람들이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으로) 걷고, 전시관(선뮤지엄)을 하고 앉아서 수련만 하기에는 시간이 기니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우리 이렇게 변화자. 뭘 바라냐면,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죠. 몇 억씩 돈을 사재를 털어서 사계리에 선문화진흥원을 만들겠습니까?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죠.⁹⁸⁾

수선재가 우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면담자)박 : 선생님도 문화영선생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구술자)민 : 네 운이 좋았죠.

(면담자)박 : 원장님이 표현하시기에는 자유인이라고 하시던데 선생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떤가요?

(구술자)민 : 자유인이시죠. 저를 갈등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 다 벗어난 거니까 대자유를 얻으신 자유인이자 자연인이시죠.

(면담자)박 : 그런 느낌이 오나요?

(구술자)민 : 잘 모르죠. 근데 다 비슷한 분위기죠. 그분은 걸림이 없어요. 저희는 사투리도 안되고 목소리도 편안하고 거슬림이 (없도록) 사투리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톡톡 찌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 조차 없는 상태, 말과 태도, 눈빛, 모든 것이 정제된 느낌이죠.⁹⁹⁾

97) 황진이·문화영, 『황진이, 선악과를 말하다』, 아루이 프로덕션, 2005, 185쪽.

98) 권00, 남성, 2011.05.22. 구술조사.

99) 민00, 여성, 2011.09.04. 구술조사.

구술자에 따르면 문화영은 깨달음을 얻은 완전한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영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 하는 면도 있었다.

사실은 어린 시절에 절에 다녔어요. (불교는) 포용력이 넓은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수선재에) 오니까 부처님의 취지와 많이 비슷해서 입문 초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수선재와) 불교가 뭐가 다른지?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이 뭐냐면 부처님이란 분을 많은 제자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성전을 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통해 기복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수선재를 만드시고 많은 책들을 발간한 문화영선생님은 결코 그런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자를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불교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담론을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부처님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듯 했어요. (불교에서는) 화두를 하라고 하지만 굉장히 막연해요. (불교는)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본래의 설법이 와전되고 하면서 많이 사라진 느낌, (그러나) 자비심은 살아있죠. 희망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나같이 일반 대중도 노력을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면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말하지요.¹⁰⁰⁾

구술한 이들의 말에 따르면 수선재의 창시자 문화영은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문화영을 깨달음을 얻은 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는 자연 중심주의이다. 수선재는 신(神) 중심의 기복적인 숭배나 인간 중심의 사유 방식을 거부하면서 자연 중심의 세계관을 지닐 것을 강조한다. 이들은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에 대한 정복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나 합일을 추구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연의 무한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결과물로 수선재는 명상을 통해 동물과 대화한 내용의 저작을 발행했다. 『다잉메시지』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연구자가 서울 북촌에 있는 선묘지엄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보여준 동영상의 내용들은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나 핀드혼¹⁰¹⁾을 예로 들면서 설명한 선애빌 공동체의 내용이었다. 그

100) 강00, 남성, 2011.09.18. 구술조사.

101) 이소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비생활모델 탐색: 영국 핀드혼과 베드제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1집 2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0, 75~76쪽. : 핀드혼은 1962년 피터와 에일린 캐디(Peter & Eileen Caddy)부부와 친구 도로시 맥린(Dorothy Maclean)에 의해 시작되었다. 핀드혼에 정착하여 자신들의 먹을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주위 황무지를 개간하여 자연의 기운과 교감하며 채소밭을 일구기 시작했고 '60년대 말경 황무지에서 농사일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수확할 것으로는 믿기지 않는 밭이 BBC 방송을 통해 보도됨으로서 핀드혼은 600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게 되었다(The Findhorn Community, 1988). 핀드혼 교육재단(Findhorn Education Foundation)을 중심으로 한 새핀드혼협의체(New Findhorn Association: 이하 NFA)는 다양한 사업조직과 구성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1999년에 조직 되었으며,

리고 현재의 물질만능주의의 구인류가 아니라 영성이 발달한 미래의 신인류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¹⁰²⁾

셋째는 서구종교의 사상이나 수련방법에 동양의 사상과 수련방법을 접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명상·단전 등과 같은 동양종교의 수련방법은 인간이 수련을 통해 진화를 하고 완전한 존재인 선인(仙人)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앞으로 수선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천주교, 기독교와 관계를 모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수선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는지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조언을 바랍니다.

수선재는 우주의 문(門)이므로 전부 열어 놓고 가고 있으나 다른 종교들은 아직 닫아야 할 부분들이 많지요.¹⁰³⁾

수선재가 영적 부분에서 기독교에 비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독교는 아주 편협한 면이 있습니다. 수선재가 기독교와 함께 가려면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¹⁰⁴⁾

수선재는 금생에 자신을 구해 줄 유일한 곳이며, 이 수선재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임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¹⁰⁵⁾

수선재를 통하여 영혼의 잠이 깰 것이다.¹⁰⁶⁾

수선재에 들어오면 항상 태극기와 팔문원에 인사드린다. 국기가 없으면 팔문원에만 인사드린다.¹⁰⁷⁾

선계수련의 흐름은 한웅을 통해 내려오고 있으며 그 아래 단군은 가장 큰 흐름을 받았던 일부분에 불과하다. 경전은 황제내경이다. 천부경, 삼일신고 등은 모두 그 일부분에 불과하고 너무 짧아서 개략적인 설명에 그칠 뿐이나 가장 정확히 받아 적은 것이 황제내경이니 황제 내경 진본으로 수련에 임하면 될 것이다.¹⁰⁸⁾

한웅은 중간 정도에서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계보라고 할 것도 없다. 동이족의 일부

2003년 핀드혼 교육재단 소속 구성원은 약 120명이며, NFA의 32개5) 사업조직에서 마을지원유기농법으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400여명의 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Findhorn Annual Report, 2002/3). 이들은 풍력과 태양열 및 재생에너지의 순수출자이며 임시 거주지인 캐러반에서 생활해 왔으나 점차 고도의 에너지 효율적 정주지로의 장기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수는 리빙머신(Living Machine)으로 불리는 생물학적 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며 자신들의 은행과 화폐도 가지고 있다. 구성원 대부분이 마을에서 일하기 때문에 출퇴근으로 허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유엔 인간정주위원회(UN Habitat)의 최고 모범사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102) 수선재는 구인류와 신인류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구인류는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로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인류를 뜻한다. 신인류는 영적 각성을 한 선인(仙人)이다. 지구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시기를 2012년으로 보고 있다.

103) 문화영, 『예수 인터뷰』, 아루이 프로덕션, 2006, 135쪽.

104) 문화영, 앞의 책, 136쪽.

105) 문화영, 『한국의 선인(仙人)들3』, 수선재, 1999, 64쪽.

106) 문화영, 『앞의 책』, 1999, 67쪽.

107) 문화영, 『앞의 책』, 1999, 86쪽.

108) 문화영, 『선계에 가고 싶다1』, 수선재, 2008, 212쪽.

를 이루고 있었는데 오늘날 한국의 ○○지방이 한웅 계열이다.¹⁰⁹⁾

숨쉬는 학교에서는 선계에 가는 방법으로 단전호흡을 이용하고, 영(靈)을 진화시키기 위한 영양분으로 우주기운과 우주의 말씀인 천서(天書)를 이용하고 있다.¹¹⁰⁾

위의 내용에서와 같이 수선재 안에 서구 종교와 동양의 사상이 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선재는 기독교와 천주교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단군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수선재가 우주기운과 우주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자신들은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다른 종교 단체보다 우위라고 주장하는 모순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선재에 들어오면 태극기와 팔문원¹¹¹⁾에 인사를 해야 한다는 의례를 강조하고 있다. 팔문원은 우주의 기운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수선재 사람들이 팔문원 문양의 수련복이나 방석, 비누, 목걸이, 귀걸이 등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

연구자가 명상아카데미를 수강할 때 처음으로 하는 것은 ‘선(仙)체조’였다. 선체조 이후에는 단전호흡을 한다. 그들은 단전호흡이 매우 중요한 수련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수련을 통해 높은 수준의 존재와 대화를 하고 인간도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 수선재의 수련과정의 핵심내용이다. 이 수련을 수선재에서는 선계수련이라고 한다.

넷째로는 우주인의 존재이다. 수선재에서는 명상을 통해 우주인과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문헌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때 명상을 하는 이들은 환경운동가 등 그 이력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수선재에서 우주인과 나눈 대화를 책으로 발간한 것은 『동이족의 숨겨진 역사와 인류의 미래』이다. 우주의 높은 존재와 지구의 운명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을 책으로 발간했다. 『위기의 지구 희망을 말하다』는 환경운동가가 명상을 통해 우주인과 교감을 하는 내용이다. 지구가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을 우주인이 말해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109) 문화영, 『앞의 책』, 228쪽.

110) 문화영, 『숨쉬는 학교』, 숨쉬는 책, 2001, 9쪽.

111) 수선재, http://www.suseonjae.org/kr/02/01_03_02.php, 2011 : 팔문원(八門圓)은 우주의 본체를 형상화한 것이다. 팔문원 형상 중 가운데의 원은 우주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며, 주변 8개의 문들은 우주의 기운이 내외부로 이동하는 통로를 나타냅니다. 이 통로를 통하여 우주의 기운이 드나들며, 이 우주의 기운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이 문들을 연결하는 바깥의 원은 우주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팔문원 중 가운데 원을 각자가 내부에 하나씩 가지게 됨으로써 자신의 원을 가동하여 우주의 기운을 받고 자신의 내부의 탁기를 내보낸다. 수련장에 있는 것은 우주에서 직접 가동하며 자신이 만든 원은 자신이 가동한다. 팔문원의 기운은 8가지로 우주 자체의 기운이다. 북쪽은 의(義)요, 동은 예(禮)이며, 남은 인(仁)이고, 서는 지(知)이다. 그리고 나머지 네 방향은 이 정방향을 지지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해 보면 ‘의’는 인간이 가야 할 방향이요, ‘예’는 인간이 다듬어야 할 부분이며, ‘인’은 인간이 자신을 강화하는 방법이고, ‘지’는 그 다듬음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다.

수선재는 지구를 하나의 유기체로 여기며 ‘어머니 가이아’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자는 수선재의 교리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그와 더불어 수선재는 영성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인간은 진화를 위해 4가지 인자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영성인자이다.

진화를 위한 4가지 인자

- ① 핵(核)인자 - 종자, 씨라고 함, 사람이 태어날 때 특정 성향을 갖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그 성질을 많이 받아 태어남. 핵인자는 부모를 누구로 하여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 ② 시간인자 - 종자가 정해졌으면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에 태어날 지가 결정됨. 사주팔자라고도 함.
- ③ 기(氣)인자 - 기 속에 포함된 인자의 구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환경인자라고도 함.
- ④ 영성인자 - 진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인자¹¹²⁾

수선재에서 말하는 ‘진화를 위한 4가지 인자’ 속에도 동서양의 사상이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사주팔자를 바탕으로 뉴에이지적인 ‘영성인자’라는 개념을 첨가하여 자신들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선계의 개념은 우주의 정점에 있는 기(氣)적인 공간으로 선인(仙人)들이 살고 있으며,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다.¹¹³⁾ 여기서도 수선재는 우주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선재는 여성이 창시자이다. 창시자가 전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책을 집필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이를 수선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교과서’라고 표현하면서 “적어도 1권당 100번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문화영의 저작을 중심으로 경전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기(氣)수련단체로 볼 수 있는 단월드¹¹⁴⁾는 ‘명상 1위 기업’이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비하여 수선재는 자신들을 ‘명상학교’라고 정의한다. 즉 “자신들은 타 명상, 요가와 기공과 종교와 다르다.”고 한다. “타 명상법과 다른 점은 호흡 수련과 의식 수련을 병행해서이고 요가는 복식호흡을 하고 수선재는 단전호흡을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한다. 또한 “기공과 다른 점은 기운을 발산하지 않고, 내기(內氣)를 강화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와 다르다.”고도 한

112) 수선재,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수선재, 2008, 199쪽.

113) 수선재, 앞의 책, 2008, 15쪽.

114) 단월드, 2011, <http://www.dahnworld.com/>.

다. 수선재는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 다르고 “종교는 일단 믿으면 모두 천당간다는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한다.¹¹⁵⁾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에는 다른 기(氣)수련단체와 뚜렷하게 다른 점을 파악할 수 없었다. 약간이나마 다른 점이 있다면 여성이 창시자이고, 공격적인 홍보나 조직키우기가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 명상이나 호흡은 단월드에서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에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불교나 유교에도 신은 없다. 개인의 수련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존재가 된다는 불교나 단전호흡을 통해 개인이 진화하는 것이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비록 수선재가 자신들을 비제도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가 되려고 선계수련을 한다거나 우주의 높은 존재와 명상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 역시 종교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4. 수선재의 실천방식

1) 운영전략으로서의 실천방식

먼저 수선재는 명상의 상품화¹¹⁶⁾를 시도하였다. 마치 명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상품처럼 전시하였고, 외국으로 수출까지 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명상의 상품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선재를 학문적인 표현으로 ‘명상학교’ 또는 ‘명상아카데미’라고 하였다.

다음은 연구자가 참여한 명상아카데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명상아카데미는 2011년 9월 4일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참여한 명상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은 9월4일(일)에 개강하여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1주일에 2시간씩 2달간 진행되었다. 장소는 제주도 서귀포 사계리에 위치한 선뮤지엄이었다. 강

115) 수선재, <http://www.suseonjae.org/>, 2011.

116) 문화일보, ‘명상기행 서울 인사동 ‘명상 아루이 선’ - 오행차 마시고 기 체험하고 명상 백화점’ 기사내용 참고, <http://www.kinds.or.kr/>, (2004.04.29) : 카페공간에는 각종 명상차와 명상CD, 명상서적, 명상달력을 비롯, 선(仙)T셔츠, 팔문원(八門圓)목걸이, 일라이트양말, 명상 액세서리 등 명상·웰빙 관련 상품들이 전시되었다. ‘명상 아루이 선’이봉 대표 “일본의 쯤(Zen) 스타일, 중국의 차이니즈(Chinese) 스타일은 서구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국 전통 명상법에 대해 아는 외국인은 드뭅니다. 일본이 참선(參禪) 명상법을 ‘쯤(Zen)’이란 브랜드로 자기 상품화했듯이, 우리 고유 명상브랜드인 ‘선(仙·Seon)’을 세계에 전파하겠습니다.”

의는 총 8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강비는 20만원이었다. 수강인원은 총 4명으로 여성이 3명이고, 남성이 1명이었다. 참여한 이들의 연령대는 30대 여성 2명, 50대의 몸이 아픈 여성 1명, 불교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40대 남성이었다. 프로그램은 처음에 30분 정도는 선체조로 몸을 풀었다. 몸을 음양오행으로 나누어서 각 기능을 설명하고 체조를 하였다. 나머지 1시간 30분 정도는 파워포인트로 이루어진 강의안을 보면서 강의를 했다. 이런 강의를 하는 강사들은 지도자 과정을 단계별로 거친다고 한다. 명상아카데미는 미리 준비된 교안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거기에는 몸의 건강을 위한 강좌도 있었다.

<자가치유 건강법> 무료 오픈 강좌

자가치유 건강강좌 소개 '건강은 왜 지켜야 하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 건강은 건강 그 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기 보다는 더 나은 삶, 보람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 실습위주의 진행을 통해 건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의 건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신의 체질을 알고 체질에 따른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 알아가며 체질 뜸과, 체질 침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을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합니다.

○ 장소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880-3 제주 선뮤지엄

○ 대상 :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자 하시는 분

○ 시간 : 2011년 4월 30일(토) 오전 10시~12시

○ 강사 : 박 은기 한의사, 『내가 고치는 자가치유 건강법』 저술

연구자는 수선재로부터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수선재에서 하는 활동들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김포공항에서 활동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도에서는 우당도서관의 야외게시판이나 제주시 천수동에 있는 게시판에 수선재의 홍보물을 게시한 것을 목격했다.

수선재는 자신들을 돈을 벌려고 하는 단체가 아니며 오로지 수선재는 회원들의 기부금과 수련참가비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선재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단체임을 강조했다.

(면담자)박 : 여기서 계속 일을 하시면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구술자)민 : (강의를 하면) 강사료도 나오고, 경제논리로 수선재를 얘기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수선재 회원들은) ‘비움공부’가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물질을 비우는 사람들이예요. 처음에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적은 생계비 수준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생활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때는 수련의 최종 목표가 없었던 거죠. 흔들리죠. 취업할 기회도 많이 생기고, 나와서 더 뜻을 펼치자 하면서 나왔던 경험은 있는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보고, 적게도 받아보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쓰게 되고, 적게 벌면 적게 쓰게 되더라구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비를 넘긴 것 같고, (수선재는) 300만원을 받기 위해 나갔어요. (그런데) 300만원도 부족하게 되고, 그런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300만원도 100만원도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0만원으로도 살 수 있겠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을 놓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300만원을 벌어도 그 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만원을 포기하고, 50만원을 받게 되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자). 만약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게 불가능 했겠지만 저는 혼자만 생활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수련하시는 분들은 가족이 있거나 하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 자체로 그분들이 또 넘기셔야 되는 거죠. 자기만의 그런 부분(고충)이 있는 거죠.¹¹⁷⁾

수선재에서 내세우는 행동원칙 중에서 ‘비움공부’라는 것이 있다. 수선재는 지구 환경을 위해 물질문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더라도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선재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선재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명상으로 대표되는 수련활동과 생태운동을 지적할 수 있다. 수선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하의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질문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문명의 대안으로 영성과 생태주의를 추구한다. 이처럼 수선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것들이 혼재해 있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서구의 뉴에이지운동의 특징과 동양의 단전호흡 등이 조합되어 있다. 그래서 수선재는 얼핏 보면 그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다.

수선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온라인 명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다. 이 카테고리 안에는 그림명상, 오늘의 명상, 경혈마찰, 선체조를 설명하고, 이를 따라할 수 있도록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명상인 경우에는 ‘동영상을 보기’를 클릭하면 그림을 보면서 명상멘트와 음악이 흐른다. 명상을 통한 대중화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117) 민00, 여성, 2011.09.04. 구술조사.

2) 문화운동으로서의 실천방식

수선재는 개인의 심신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 혹은 지구의 구원까지도 생각하는 ‘문화운동’을 동시에 추구해왔다. 지구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행동지침¹¹⁸⁾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는 ‘생태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연친화적인 자재로 지은 작은 집에서 살며 가전제품의 사용도 자제하고 있다. 사망 시에는 화장을 하고 재를 물이나 흙에 뿌림으로써 곧바로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신이 버린 쓰레기는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이다. 수선재는 개인구원에서 사회구원으로 그 지향점이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다. 회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생태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1998년 개인의 수련을 위해 동호회 성격으로 시작한 수선재가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조직을 확대하고, 더불어 그 지향점도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선재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연구자가 참여한 아트메디테이션(Art-Meditation)은 2011년 4월 10일부터 2달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수강료는 2달 8회 강좌에 20만원이었다. 참여한 사람은 모두 여성으로 3명이었다. 나이는 30대였고, 주부가 2명이었다. 8주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원모양으로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와 비슷한 내용을 강사가 이야기 하였다. 명상 음악이 흐르고 향초를 켜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흰 도화지에 파스텔이나 색연필, 크레파스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린 후 한쪽 방향으로 그림을 돌려서 다른 사람의 그림에 이미지를 더 한다. 그리고 각자가 그림을 다 그린 후 느낌을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도 있었다. 연구자는 이것을 예술을 통한 치유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였다. 8강 중에 1강은 선체조와 단전호흡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북촌 선묘지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힐링 콘서트, 천연비누 만들기, 손수건 만들기, 노끈으로 짚신 만들기 등의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책을 발간한 이후에는 강연회도 개최하였다. 최근에는 ‘환경운동가 이종민의 희망살림 강의’를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 있는 선묘지엄에서 하였다. 이는 수선재를 홍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수선재는 다

118) 수선재, 『목적있게 사는 법』, 수선재, 2007, 353~355쪽.

양한 문화활동으로 회원들을 모으고자 홍보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세련된 방법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3) 사회구원으로서의 실천방식

수선재는 2010년부터 지구의 구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구를 한 생명체로 인식하고 하루의 5분 동안 지구를 위해서 명상을 하거나 제주도를 도보로 다니면서 지구의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지구를 위한 모임에 외국인들도 참가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만들어서 회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관련된 문헌도 발간하고 있다. 수선재는 스스로 '지구방위대'라고 칭하면서 지구의 위기를 설파하고 있다. 수선재는 2010년을 기점으로 지구를 위한 메시지를 문헌을 통해 활발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을 사회구원으로서의 실천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수선재의 신영성운동의 특징

한국사회의 신영성운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양의 수련문화를 다양하게 받아들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기수련, 단전호흡, 요가, 명상, 채널링, 생태운동, 예술치유 등이다. 현시대에 유행하는 심신수련에 대한 모든 기법들을 총망라하고 있어 얼핏 보면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호한 것이 특징이다. 관련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에서 가톨릭은 교세 축소의 위협으로 감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신영성운동의 유행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문헌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출판사 정신세계사, 김영사, 산티 등이 그 중심에 있다. 수선재도 출판사 수선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문헌을 발행하고 있다. 이것은 회원을 모집하는 좋은 방안이다. 그리고 종교라는 용어 대신에 영성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 한국사회의 신영성운동은 기수련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왜 1990년대에 기수련단체를 중심으로 신영성운동이 태동한 것인가. 연구자는 우선 1990년대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0년대의 한국사회는 대내적으로는 IMF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고, 국민의 정부로 불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붕괴가 있었다. 한국사회의 대중들은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자유, 그리고 사회주의 몰락을 목격했다. 이 혼돈의 시기에 대중들은 정신의 위안을 찾고자 했으나 기존의 종교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 대안 하나로 새로운 운동이 기수련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신영성운동은 미국의 뉴에이지운동과 일본의 정신세계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1) 영성적 특징

수선재는 ‘영성’을 인간이 갖고 닦아서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은 깨달음을 얻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은 주로 신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라면 수선재의 영성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주체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영성이 개발되는 방법은 지속적인 호흡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지속적인 호흡으로 영성이 개발되면 모든 면에서 보람 있는 생활이 전개될 것이다.”¹¹⁹⁾

수선재는 스스로 ‘명상학교’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영성과 비교해서 그보다는 우위라고 말하고 있다. “수선재가 영적 부분에서 기독교에 비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독교는 아주 편협한 면이 있다. 수선재가 기독교와 함께 가려면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¹²⁰⁾ 그리고 수선재는 그들이 하늘의 진리를 편다고 주장한다. “수선재의 가장 큰 맹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은 하늘의 진리를 바로 편다는 것이다.”¹²¹⁾

“영(靈)과 ‘성(性)’을 합쳐서 ‘영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곳은 성이다. 영 다음이 성이다. 영성을 높이고 진화시키는 것이 수련의 가장 큰 목적이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은 4가지로서, 첫 번째는 ‘사고’, 두 번째는 ‘감각’, 세 번째는 ‘감정’, 그리고 마지막은 ‘행동’이다. 4가지를 다 포함해서 영성이라고 하며, 영성

119) 문화영, 『한국의 선인(仙人)들4』, 수선재, 1999, 232쪽.
 120) 문화영, 『예수 인터뷰』, 아루이 프로덕션, 2006, 136쪽.
 121) 문화영, 앞의 책, 146쪽.

이 탁월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와 감각과 감정과 행동이 통일되고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다.”¹²²⁾ 수선재는 영성을 높이고 진화시키는 것이 수련의 가장 큰 목적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선재에서는 영성의 특징을 종교적으로 해석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성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많이 쓰이던 용어이다. 기독교의 영성은 인간이 신과의 관계 속에서 체득하는 수동적인 성격이라면 한국사회의 기(氣)수련단체에서는 영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선재는 영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인간의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선재는 자체적으로 교리를 발달하기보다는 동서양의 종교적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종교적 특징

수선재는 ‘새로운 종교현상’으로서 일반적인 구성요건들을 갖추고 있다. 즉 수선재는 창시자, 교리, 조직, 공동체적 의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구원과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 등을 갖추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선재는 문화영의 수련을 통한 ‘깨달음’을 계기로 한국사회에 등장했다. 문화영은 계속된 수련으로 ‘선인(仙人)’이 되었다. 여기서 선인(仙人)은 완전한 존재이다. 잉거(Yinger)는 “종교는 일단의 사람들이 인간생활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수단이 되는 믿음과 수행의 한 체계”라고 규정하고 있다.¹²³⁾ 수선재의 사람들은 인생의 근원적인 물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이들이 ‘궁극성’을 지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수선재의 사람들은 문화영의 문헌을 중심으로 가치관을 공유하며 생태공동체 생활을 한다. 의례는 명상과 선계수련이다. 수선재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지구의 안녕까지 걱정하면서 전지구적 생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결국 수선재는 창시자 문화영이 있고, 문화영의 문헌이 교리이고, 명상과 선계수련이 의례이다. 그리고 수선재의 사후 세계관을 살펴보면 인간이 태어난 이유는 수련을 통해 10단계로 나누어진 영적 진화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는 영적 수련을 위한 별이고, 영혼은 지구라는 별을 영적 진화를

122) 수선재, 『목적있게 사는 법』, 수선재, 2007, 74쪽.

123) 밀턴 잉거, 『종교사회학』, 대한기독교서회, 1973, 28쪽.

목적으로 선택해서 태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종교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명상학교, 생태공동체, 문화공동체라고 명명한다. 이처럼 수선재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불교의 창교자 박중빈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물질문명에 끌려가는 인류의 정신 구원을 위한 종교운동을 전개하였다.¹²⁴⁾ 이처럼 수선재는 신종교의 창교 과정과 사상이 유사한 점도 있다. 수선재는 현대인의 화두인 ‘건강’, ‘생태’, ‘문화’ 등을 표방하며 대중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종교에 대한 거부감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두를 포착하여 활동 안에 아우르는 포용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선재는 종교라는 하나의 잣대로 판단하기에는 넓은 포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IV. 결론

이 연구는 수선재라는 기(氣)수련단체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신영성운동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그 실체에 대하여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氣)수련단체가 새로운 종교현상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첫째, 한국의 기(氣)수련단체는 종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 마찬가지로 수선재도 기존 종교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스스로를 ‘비영리교육단체’ 또는 ‘명상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의 평안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수선재는 명상이나 선계수련을 통해서 구원(그들의 표현으로는 ‘인간의 진화’)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결국 구원을 통한 종교적 믿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현대사회는 웰빙(well-being)을 넘어 힐링(healing)을 이야기하는 시대이다. 신영성운동을 실천하는 수선재는 현대인이 요구하는 추세를 감지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안은 곧 ‘선(仙)뮤지엄’이라는 ‘인생박물관’이나 명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명상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다. ‘인생박물관’에서는 지구의 환

124) 노길명, 앞의 책, 2006, 146쪽.

경오염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에 대해 경고하며 그 대안으로 명상을 통한 지구인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명상아카데미’의 경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실존적 문제제기를 통하여 나 - 타인 - 자연 - 하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주론까지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수선재의 형이상학적 초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셋째, 일부 종교가 자신들의 조직을 키우려고 할 뿐, 현대인이 원하는 바를 놓치고 있을 때, 수선재는 발 빠르게 현대인의 현실적 욕구를 감지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려 한다. 즉 공격적인 홍보가 아닌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의 개인주의적 사고와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종교단체들의 인식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수선재는 스스로 ‘종교’가 아니라 ‘문화공동체(또는 생태공동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선재는 문화영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태동하였다. 그리고 수선재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명상이나 선체조를 하면서 함께 살고 있다. 즉 수선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명상이나 선체조를 의례로 행하고, 심지어 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 문화영의 문헌까지 암기하는 것을 고려하면 수선재는 한국 현대사회의 새로운 종교현상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수선재는 자신들의 주요 활동으로 명상과 단전호흡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이나 생태운동 등을 한다. 이를 통해 수선재는 하나의 성격으로 정의하기 힘든, 다양한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종교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신영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 신영성운동이라는 자각도 없이 몸과 마음의 평안,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 추구, 자신에 대한 이해 등을 위해 활동한다. 이런 흐름은 각기 목적은 다를 수 있으나 새로운 종교현상으로 묶을 수 있다.

신영성운동은 기존 종교처럼 모여 있는 현상이라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활동이라서 그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수선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했지만 그 동기 등을 살펴보면 몸이 아프거나 현실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삶과 죽음 등에 근원적인 물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수선재에서 하는 활동은 표면상으로는 종교적인 성향과 거리가 있는 문화활동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구원(진화나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종교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문화활동이나

생태운동인 것처럼 보여 그 성격이 모호한 것이 신영성운동의 특징이다. 신영성운동에서는 인간을 정신과 육체, 그리고 영성을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건강의 범주에 정신, 육체, 영적인 건강까지 포함하여 추구한다.

현대인들은 기존의 종교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욕구를 신영성운동에서 찾는다. 신영성운동은 느슨한 조직과 개인적인 영성 추구라는 특징으로 인해 현대인들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런 면으로 인해 수선재는 기존 종교의 외연을 확대한다면 종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선재를 기존 종교의 기준을 가지고 검토해 보았다. 결국 수선재는 기존 종교의 형식 속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수선재는 자기의 영성을 키우고 싶은 현대인들의 욕구가 결합되어 만드는 새로운 종교현상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대 한국사회가 생성하고 있는 새로운 종교현상이라고 사료된다. 수선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성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수선재는 개인의 영성 추구로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선재는 현대인들의 완벽하고도 근본적인 변혁의 열망에 호응하여 스스로 ‘지구 방위대’를 자처하면서 그 지향점이 개인에서 사회로 확대되었다. 수선재는 한국사회의 경쟁적인 물질만능주의에 대항하여 개인적 영적 추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생태운동이나 문화운동을 하는 조직이다. 이런 새로운 종교현상을 막스 베버의 ‘선택적 친화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한 개인의 영성추구는 현대사회의 무한경쟁적인 분위기로 인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개인들의 결합이라 볼 수 있는 수선재라는 새로운 종교현상을 만들어 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신영성운동’을 ‘수선재’라는 단체를 통하여 그 실제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수선재는 그 다양성과 모호함으로 인해 과거의 낡은 종교의 잣대로 규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단지 수선재가 넓은 의미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을 확인하였다.

현재 관련학계에서 기(氣)수련단체에 대한 논의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한 예로 단월드를 분석한 백세곤의 연구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단체를 조사하여 사례분석한 연구 실적이 거의 없다. 이런 풍토에서 수선재라는 단체를 사례로 조사한 이 연구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신영성운동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단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단체로 국한되었던 이 연구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남은 문제들에 대한 규명은 앞으로의 후속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교황청 문화평의회·종교간대화평의회, 『생명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 김대선 외, 『동이족의 숨겨진 역사와 인류의 미래』, 수선재, 2011.
- 김중서, 『종교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권석만,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학지사, 2008.
- 노길명, 『한국의 종교운동』,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 누크 산체스·토머스 비에라, 『에고로부터의 자유』, 산티, 2011.
- 뒤르케임 에밀,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민영사, 1992.
- 매릴린 퍼거슨, 『뉴에이지 혁명』, 정신세계사, 1987.
- 밀턴 잉거, 『종교사회학』, 대한기독교서회, 1973.
- 문화영, 『한국의 선인(仙人)들1~6』, 수선재, 1999.
- _____, 『숨쉬는 학교』, 숨쉬는 책, 2001.
- _____, 『천서 0.0001①~②』, 수선재, 2001.
- _____, 『소설 선(仙)1~3』, 수선재, 2003.
- _____, 『무심(無心)』, 수선재, 2004.
- _____, 『생애 최고로 행복한 기회를 잡다』, 수선재, 2005.
- _____, 『오, 메시아? NO!』, 아루이 프로덕션, 2005.
- _____, 『예수 인터뷰』, 아루이 프로덕션, 2006.
- _____, 『선계에 가고 싶다1, 2』, 수선재, 2008.
- 맥과이어, 『종교사회학』, 민족사, 1994.
- 발레 마틴, 『2012, 그 이후의 삶』, 산티, 2010.
- 베버 막스, 『종교사회학 선집』, 나남, 2008.
- _____, 『‘탈주술화’과정과 근대 : 학문, 종교, 정치』, 나남, 2002.
- 시마조노 스스무, 『현대일본 종교문화의 이해』, 청년사, 1997.
- 샤를 앙드레 베르나르, 『영성신학』, 가톨릭출판사, 2010.
- 수선재, 『의선(醫仙) 허준과의 만남』, 수선재, 2000.
- _____, 『목적있게 사는 법』, 수선재, 2007.

- _____,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수선재, 2008.
- _____,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수선재, 2008.
-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나남출판, 2001.
- 안셀름 그윈, 『아래로부터의 영성』, 분도출판사, 1999.
- 앤드루 라우스, 『서양신비사상의 기원』, 분도출판사, 2001
- 주교회의 한국사목연구소, 『유사영성 운동의 현황과 확산 대책보고서: 가톨릭 영성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중심으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 전명수, 『뉴에이지운동과 한국의 대중문화』, 집문당, 2009.
- 클리퍼드 기어즈, 『문화의 해석』, 까치, 1999.
- 탈리히, 『종교철학이란 무엇인가』, 계명대학교출판부, 1998.
- 토마스 루크만, 『보이지 않는 종교』, 기독교문사, 1990.
- E. J. 홉스봄, 『반란의 원초적 형태』, 도서출판 온누리, 2011.
- 황진이·문화영, 『황진이, 선악과를 말하다』, 아루이 프로덕션, 2005.

<학술지>

- 강인철, 「종교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적 동조와 종교의 산업화」, 『비평』, 통권7호, 생각의 나무, 2002 : 214~253쪽.
- 김경재, 「주기도문의 영성과 씨알사상」, 『한국기독교신학논총』, 한국기독교학회, 1989 : 7~41쪽.
- 김무경, 「단학선원: 신화의 회귀와 '카리스마의 일상화」, 『한국종교연구』,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2000 : 71~121쪽.
- 김세서리아, 「하곡의 '도덕적 영성'으로서의 양지와 그 현대적 의미」, 『양명학』, 제22호, 한국양명학회 논문집, 2009 : 223~253쪽.
- 김성환, 「한국의 선도 연구」, 『도교문화연구』, 제28집, 한국도교문화학회, 2008 : 9~35쪽.
- 김용해, 「현대영성의 초월 철학적 이해」, 『가톨릭철학』, 제10호, 2008.
- 길희성, 「동서양의 영성 전통과 현대 영성의 과제」, 『서강인문논총』 제21권,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 271~300쪽.
- 민소영, 「영성의 개념분석」, 『간호과학』,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2001 : 59~67쪽.
- 박규태 「일본의 현대종교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정신세계·신영성운동·신신종교」, 『신종교연구』, 한국신종교학회, 2000 : 29~58쪽.

- 박상언, 「현대 한국종교문화의 변동 양상과 성격: 심신수련단체에 나타난 치유와 영성의 결합 양태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5집, 한국종교학회, 2006 : 271~290쪽.
- 박신배, 「철학적 평화론과 평화의 영성 연구」, 『문화와 신학』, 제5집, 한국문화신학회, 2009 : 245~272쪽.
- 박승길, 「한국의 종교시장과 세계구세교 구제재의 차별성」, 『한국종교사연구』, 한국종교사학회, 2005 : 436~446쪽.
- 백준흠, 「영성에 대한 원불교 교리적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 179~208쪽.
- 신승환, 「현대문화에서의 영성론 연구」, 『하이데거 연구』, 제15집, 한국하이데거학회, 2007 : 567~596쪽.
- 성지연, 「유가철학의 기(氣)와 선(善): 맹자, 주자, 다산, 혜강을 중심으로」, 『윤리교육 연구』, 제5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04 : 151~175쪽.
- 손진욱, 「영성과 우울증」, 『정신분석』, 19집, 2008 : 101~110쪽.
- 이경열,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제15집, 2003 : 711~728쪽.
- _____, 「영성증진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제18집, 2007 : 779~800쪽.
- 이금만, 「영성심리와 영성교육」, 『신학연구』, 제47집,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 2005 : 319~333쪽.
- 이소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비생활모델 탐색: 영국 핀드혼과 베드제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1집 2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0 : 3~160쪽.
- 인경, 「불교영성과 명상치료」, 『명상치료연구』, 한국명상치료학회, 2007 : 135~163쪽.
- 오복자, 강경아, 「영성의 개념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한국간호과학회, 2000 : 59~67쪽.
- 오복자, 전희순, 소외숙, 「한국어판 영성측정도구(S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연구」. 『중양간호학회지』, 제1권 제2호, 대한중양간호학회, 2001 : 168~178쪽.
- 오복자, 「영성·희망증진 프로그램이 암환자의 투병의지, 무력감, 불안 및 자가 간호행위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제20권 제1호, 성인간호학회, 2008 : 65~76쪽.
- 우혜란, 「서구의 '뉴에이지'연구동향」, 『종교문화비평』,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4 : 169~318쪽.
- _____, 「동시대 한국의 종교현상 연구와 '종교' 개념의 재고찰: '영성'에 대한 논의를 출발

- 점으로」, 『한국종교연구』,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2005 : 3~58쪽.
- _____, 「동시대 한국의 기수련 문화와 무속: 그 습합적 성격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한국종교학회, 2006 : 71~113쪽.
- _____, 「동시대 기수련단체 속의 여성 ‘힐러」, 『종교문화비평』,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6 : 122~162쪽.
- _____,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종교현상: 한국의 예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한국신종교학회, 2008 : 25~55쪽.
- 유재경, 「영성의 연구 경향과 전망」, 『신학과 실천』, 제24호, 한국실천신학회, 2010 : 183~212쪽.
- 전명수, 「개인주의적 영성운동과 세속화 논쟁」, 『담론 201』, 한국사회역사학회, 2010 : 55~79쪽.
- 정강길, 「영성과 영성수련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조직신학논총』, 제20집, 한국조직신학회, 2008 : 221~259쪽.
- 정태식, 「종교의 정의(定義)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일고찰」, 『2008 전기 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회, 2008.6 : 395~401쪽.
- 최해림, 「상담에서 영성의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제13집, 2001 : 1~13쪽.

<논문>

- 김유심, 「빈곤층 여성한부모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대처자원 연구: 영적 안녕감, 가족자원의 조절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노경이, 「영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및 영성 실태 조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백세곤, 「‘새로운 종교현상’으로서의 기수련문화에 대한 연구: 단월드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오미성, 「한국인의 영성체험」,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유나래, 「영성 지향 예술치료사들의 창조적 예술치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경열, 「영성증진훈련프로그램이 영성, 자기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장석만, 「개항기 한국사회의 “종교”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전명수, 「현대사회와 종교문화의 변용에 관한 연구: 신영성운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정은영, 「영성의 개념 분석과 그 교육적 시사」,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허현나, 「종교적 지향성과 영성적 안녕 및 심리적 안녕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2.

<기타>

단월드, <http://www.dahnworld.com/>, 2011.
문화일보, “명상기행 서울 인사동 ‘명상 아루이 선’ - 오행차 마시고 기 체험하고 명상
백화점”, <http://www.kinds.or.kr/>. 2004년 4월 29일자.
사단법인 선문화진흥원, <http://www.seonculture.org/>, 2011.
서울경제, “직장인 위한 氣무료강연 열어”, <http://www.kinds.or.kr/>. 2003년 1월 19일자.
수선재, http://www.suseonjae.org/kr/02/01_03_02.php, 2011.
연합뉴스, “WHO 건강규정에 ‘靈的 안녕’ 신설”, 1998년 1월 23일자.
한겨레, “마음 다스려 건강 되찾는다, 기공수련법 인기 확산”, <http://www.kinds.or.kr/>,
1992년 11월 18일자.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www.kinds.or.kr/>. 2011.
한국일보, “仙체조 中 보급하는 최수영 변호사, 기공의 나라에서 한국 명상 본때”,
<http://www.kinds.or.kr/>, 2004년 12월 04일자.
한상봉,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2011년 5월 3일자.